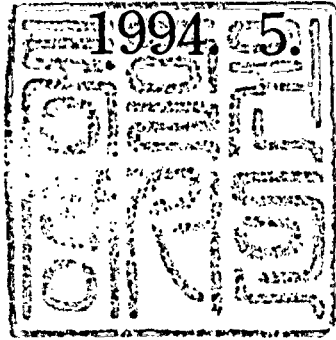


독일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 사례

-1984~1992-



통 일 원

○ 이 자료는 1984년부터 1992년에 실시한
독일 알렌스바흐의 여론조사 연감중
통일문제와 관련한 제9권을 번역한
것입니다.

○ 자료출처

Allensbach 여론조사 출판사

○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참고를 위해 비매품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목 차

1. 인적관계, 정치적 관계, 동서독 이주 - - 3
2. 통일에의 발전추세 및 관점 - - - - - 37
3. 통독에 따르는 문제점 - - - - - 79

1. 인적관계, 정치적 관계, 동서독 이주

1. 인적관계, 정치적 관계, 동·서독 이주

< 친인척 >

0 서독인에 대한 질문: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친척이나 친지가 있습니까?”

0 답변: (단위: %)

구 분	'53. 2.	'81. 7.	'89. 1.
있 다	44	38	32
없 다	56	62	68
계	100	100	100

0 동독인에 대한 질문: “서독이나 서베를린에 친척이나 친지가 있습니까?”

0 답변: (단위: %)

구 분	'90. 3.
있 다	84
없 다	16
계	100

< 동독방문 >

0 질문: “1979년이후 최근 10년동안 방문자 또는 휴가자로서 동독에 가 ('89. 1) 본적이 있습니까?” (A)

“1979년이후 최근 10년동안 동독방문객을 맞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B)

0 답변: (단위: %)

구 분	A	B
있 다	20	20
없 다	79	80
무응답	1	-
계	100	100

0 질문: “동독 사람들은 서독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구 분	'79. 8	'85. 12
행복하지 않음	55	45
비슷함	29	38
더 행복함	1	1
무응답	15	16
계	100	100

< 우호적 공존 >

0 질문: “동·서독인들이 서로 분단상태하에 생활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하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기여할 것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그리고 귀하가 무엇인가 기여했다면 답해 주십시오”

0 답변:

(단위: 명)

기 여 내 용	기 여	기여예상
동독에 있는 친지 방문	16	37
동독에 있는 친지 초청	15	36
관광차 동독여행	10	35
동독에서 일어난 것을 조사	14	34
동독으로의 수학여행 중재	3	32
동독의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2	30
동독에 편지나 소포 우송	21	29
인권조사	6	29
독일역사에 열중	8	24
양독의 재결합을 표방하는 당, 집단을 지지	5	21
동독 관련 서적 탐독	10	21
동독 문학 작품 탐독	9	17
동독을 승인하는 당, 집단을 지지	2	8
	125	363
없 다	18	42
무 응 답	2	1

< 동 질 감 >

- 0 질문: “귀하가 흑해연안 어느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날 독일인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이 동독에 살고있는 동독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사실을 알게된 순간,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래 여러 항목중 어느것이 귀하의 생각과 적중하는 것입니까?”

0 답변:

(단위: 명)

내 용	'70. 7	'79. 8	'89. 1
호기심에서 환담을 나눌 것이다	71	71	71
만나서 반가울 것이다	61	48	57
외국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것이다	59	50	54
음료수를 들자고 제안할 것이다	45	40	51
동독인은 허심탄회하지 않기에 그의 진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40	44	36
동독인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나와 동석 하지 않을 것이다	13	15	13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12	14	13
정보활동의 일종일 것이다	6	6	5
몸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3	4	4
환멸감을 느낄 것이다	2	3	2

0 질문: “매우 일반론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최근 3, 4년동안 동·
(’87. 8) 서독인들간의 관계는 개선되었습니까? 악화되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더 좋아졌다	48	54	39	44	37
더 나빠졌다	3	2	3	5	3
비슷하다	38	34	47	40	45
잘 모르겠다	11	10	11	11	15
계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동·서독인들이 서로 만나면 대부분 의사소통이 잘된다, 잘 ('91.12) 되지 않는다는 풍문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잘 된다	54	75
잘 안된다	21	9
잘 모르겠다	25	16
계	100	100

< 자유에의 갈구 >

0 질문: “다음 항목중 동독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5가지가 무엇 ('85.12) 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귀하는 어떤 것일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0 답변:

- 서방지역으로의 여행 자유화 (75명)
- 언론, 사상의 자유 (68명)
- 생활수준의 상승 (56명)
- 해외이주의 자유 (52명)
- 장벽과 철조망의 철거 (47명)
- 국경지역에서의 사격명령 폐지 (44명)
-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금지 (42명)
- 양독의 재결합 (19명)
- 직업선택의 자유 (17명)
- 소련에 종속된 상황의 지양 (16명)
- 관광객 증대를 위해 강제적인 환전제도의 폐지 (11명)
-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10명)
- 환경보호 (8명)
- 잘 모르겠다 (4명)

< 도시간 자매결연 >

0 질문: “예컨대 Weimar와 Trier처럼, 현재 동·서독 일부 도시간에는 ('86.12)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이 더 많이 맺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증가가 필요하다 (68%)
- 불필요하다 (16%)
- 잘 모르겠다 (16%)

0 질문: “다음 목록에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과 관계될 수 있는 ('86.12) 몇가지 사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0 답변:

- 시민들의 상호 방문 (77명)
- 젊은층의 상호 교류 (75명)
- 상호간 여행의 제도화 (63명)
- 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의 친선 교류 (59명)
-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정치제도 소개 (58명)
- 환경보호 정책의 상호 정보교류 (56명)
- 서독인들을 자매도시에 초대 방문 (55명)
- 강연, 전시회 등을 통한 자매도시 상호간의 이해 증대 (54명)
- 서독인들에게 동독의 정치제도 소개 (49명)
- 상호 도시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안목 견지 (48명)
- 문화행사를 통한 예술가들의 상호 교류 (44명)
- 종교단체의 상호 교류 (43명)
- 자매도시에 대한 정기적인 신문보도 (43명)
- 핵무장을 비롯한 군증강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공동대처 활동 (34명)
- 상호간 시행정 대표들의 교류와 업무내용 비교 (33명)
- 상호간 시장의 친선 방문 (32명)
- 경영단체 상호간의 방문 (31명)
- 자매도시의 이름을 딴 거리명, 지명의 명명 (21명)
- 무응답 (8명)

0 질문: “귀하가 알고있는 사실이거나 추측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한번 ('91.5) 짚고 넘어가 봅시다. 동독인들의 동질감은 서독인들의 자체적 동질감보다 더욱 강하거나 더욱 약하거나 또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동질성 증가	72	71	72	67	70	79	72
동질성 감소	4	4	4	5	5	3	3
차이가 없다	14	15	13	15	15	12	13
잘 모르겠다	10	10	11	13	10	6	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차라리 서독에서 살고파 >

0 질문: “대변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독보다는 서독에서 태어나 (동독, '90.11)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에 자주 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이상	기민당	자민당	녹색/ 사민당	민사당
그렇다	52	61	55	53	39	68	52	41/45	10
아니다	48	39	45	47	61	32	48	59/55	9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100	100

0 질문: “만일 서독에서 태어나 성장하기를 원했을 경우, 그 소망의 (동독, '90. 11)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 치 성 향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기민당	자민당	녹색/ 사민당	민사당
자 유	58	60	63	61	41	57	63	54/65	7
삶의수준	45	54	42	40	41	47	38	46/49	27
삶의질	14	9	13	11	27	15	15	10/11	18
기 타	4	2	1	6	10	3	5	9/-	-
무응답	6	7	10	6	-	6	6	6/ 6	-

< 동·서독인간의 접촉 >

0 질문: “귀하가 지난해 서독에서 동독인을 (동독인에 대한 질문: 동독에서 서독인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새로 사귀었거나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0 답변:

(단위:명)

내 용	서 독 인		동 독 인	
	'90. 2	'91. 7	'90. 7	'91. 7
아는 사람을 만났다	21	25	58	58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29	46	34	42
만난적이 없다	52	35	23	15
계	102	106	115	115

0 질문: “만일 만난적이 있을 경우, 귀하가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서 독 인		동 독 인	
	'90. 2	'91. 7	'90. 7	'91. 7
서로를 잘 이해한다	75	68	92	84
정치상황에 대해 대화한다	61	56	77	68
그들은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30	50	8	18
그들은 우리의 원조를 좋아한다	64	36	40	36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44	35	77	64
함께 축제를 즐긴다	42	34	61	55
그들은 겸손하고, 신중하다	47	33	24	11
서:그들은 우리의 복지생활을 부러워한다	29	30	-	-
동:그들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정한다	-	-	-	32
서:그들은 서독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20	21	-	-
동:그들은 동독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	-	9	12
서:그들은 서독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불평한다	5	21	-	-
동:그들은 동독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불평한다	-	-	4	4
주소를 상호 교환한다	-	19	29	26
양독인간의 올바른 동질감을 느낀다	-	18	54	30
서:그들은 서독의 풍부한 생활물자에만 관심이 많다	13	18	-	-
동:그들은 동독에서의 돈벌이에만 관심이 많다	-	-	-	16
낯선 감정이 든다	7	13	6	10
서로 싸운다	3	6	6	9
무응답, 기타	3	3	2	2

0 질문: “베를린장벽이 개방되기전 몇년동안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귀하 ('90. 11) 는 동(또는 서)독인들이 언젠가 서로 전쟁을 하게될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0 질문: “베를린장벽이 개방되기전 몇년동안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귀하 ('90. 11) 는 동(또는)서독인들이 언젠가 서로 전쟁을 하게될 것이라고 걱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걱정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전주민	16-29세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전주민	16-29세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있 다	29	21	29	31	34	34	42	41	51	46
없 다	56	59	61	56	49	41	45	42	38	39
모르겠다	15	20	10	13	17	14	13	17	11	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서독지역의 사회분위기 >

0 질문: “구서독사회가 냉혹하고 무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동독) 않다고 보십니까?” (A)

“구동독사회가 점점 더 냉혹하고 무정해진다고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B)

0 답변: (단위: %)

내 용	A		B	
	'90. 8	'91. 7	'90. 8	'91. 7
그렇다	23	37	56	61
그렇지 않다	48	40	29	27
모르겠다	29	23	15	12
계	100	100	100	100

< 자유와 인권 >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누가 옳다고 ('87.11) 보십니까?”

“동독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동독도 서독처럼 자유와 인권이 향유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 (A)

“동독은 자유와 인권을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자립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동독이 우리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고 그대신 동독의 발전추세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될 것이다.” (B)

- 0 답변: A (43%), B (37%), 잘 모르겠다 (20%)

< 동독인과 서독인 >

- 0 14세부터 21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질문: ('87.11)

“그리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서독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 항목중 서독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독청소년에 대한 질문: A)

“동독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스스로 체험해 보았거나 경청한 바를 기준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서독청소년에 대한 질문: B)

- 0 답변: (단위: 명)

내 용	A	B
돈을 벌려고 한다	8	61
관료주의적이다	19	55
명예욕이 강하다	15	47
말끔하고 단정하다	25	47
부지런하다	39	43
비판적이다	20	41
자부심이 강하다	8	38

편안함을 추구한다	4	35
불평불만이 많다	43	33
잘 믿지 않는다	38	29
정치에 관심이 많다	28	29
개방적이다	13	26
친절하다	29	25
책임감이 강하다	12	24
경솔하다	4	24
활동적이다	9	23
성실하다	16	12
신앙심이 깊다	12	10
겸손하다	37	7
소심하다	37	6
화해적이고 침착하다	7	5
검소하다	46	5
음울하고 의기소침하다	28	4
잘 모르겠다	17	7
계	510	636

(청소년 1330명 무작위 표본조사)

o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서독에도 부자유가 많다. 따라서 동독과 ('87.11)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 했을 경우, 귀하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동의한다	9	13	6	10	6	5	2	8	28
반대한다	82	83	84	82	81	87	89	81	68
모르겠다	9	4	10	8	13	8	9	11	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서독 비교 >

0 질문: “다음 항목을 한번 검토한 후, 과연 어떤 사항이 이곳 서독 ('87. 11) (또는 동독)에서 더 우세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서독 우세	동독 우세	모르겠다
생활용품 구입	96	1	1
언론의 자유	96	1	1
자동차	95	1	1
휴가, 여행	94	-	3
개개인의 결정권	90	1	3
유행복	88	1	9
인권	85	1	7
세계개방정신	81	1	8
주택상황	79	4	7
직업선택의 자유	76	2	13
대중음악 콘서트	73	1	10
자아실현	71	1	9
사회적인 상승 가능성	67	6	12
환경보호	67	1	20
노인 생활보장, 연금	64	7	17
노조의 경영참여	60	17	11
의료보장 제도	53	10	23
청소년 놀이공간	53	14	20
만족도	52	7	26
대중 교통수단	51	14	20
사회 정의	47	19	18
빈민, 소외계층 구제책	45	61	25
성과 기대	44	16	28
과학 진흥	41	15	11
교육, 평생교육	39	18	31
예술진흥	35	15	11
남녀평등	31	27	29
정치에 대한 관심	28	25	34
청년단체, 청년조직	20	44	20
탁아소, 유치원	19	47	23

가족의 일체감	15	33	39
전세 형편	15	63	10
민생치안	15	38	29
단결, 공동체 의식	14	46	22
일자리 보장	13	61	13
체육 진흥	6	82	7

0 질문: “많은 사람들은 ‘서독의 정치제도 또는 동독의 정치제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견해에 따르는 사안이다. 즉 어느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하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동의한다	31	30	29	34	31	27	36	31	42
반대한다	53	54	57	50	53	59	49	54	34
모르겠다	16	16	14	16	16	14	15	15	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독피난민 >

0 질문: “현재 많은 독일인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용기있는 결단이 귀하를 어느정도 감동시키고 있는지요? 여기 온도계가 있으니 귀하의 감동정도를 표현해 주십시오. 100도는 서독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귀하를 매우 감동시킴을 뜻하며 0도는 귀하가 이 사실로부터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대단히 감동적이다 (80-100)	35	33	36	28	33	37	42
감동적이다 (60-79)	23	23	24	22	23	25	24
보통이다 (40-59)	23	22	23	27	23	22	19
별로 무감동적이다 (0-39)	18	21	16	22	20	16	14
모르겠다	1	1	1	1	1	-	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온도지수	61.2	59.7	62.5	56.5	59.5	62.8	66.6

(단위: %)

내 용	교육수준별			정치적 성향별			
	국졸	중등 교졸	대졸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대단히 감동적이다 (80-100)	32	39	42	36	45	33	31
감동적이다 (60-79)	24	22	23	27	18	24	21
보통이다 (40-59)	25	20	20	22	18	24	24
별로 무감동적이다 (0-39)	19	18	13	15	19	19	22
모르겠다	-	1	2	-	-	-	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온도지수	59.0	62.8	66.0	63.7	64.7	60.5	59.3

< 동독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

0 질문: “귀하는 동독을 법치주의국가라고 간주하십니까? 아니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간주하십니까?” ('87. 10)

0 답변:

- 법치국가이다 (16%)
- 아니다 (67%)
- 잘 모르겠다 (17%)

0 질문: “3권분립에 대해 무엇인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 ('88. 4)
“만일 3권분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경우, 동독에서 3권분립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B)
“그렇다면 서독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독에서 3권분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C)

0 답변:

- | | | |
|----------------|----------------|-----------------|
| (A) - 있다 (56%) | (B) - 그렇다 (9%) | (C) - 그렇다 (70%) |
| - 없다 (44%) | - 아니다 (64%) | - 아니다 (9%) |
| | - 잘 모르겠다 (17%) | - 잘 모르겠다 (21%) |

< 처음부터 불법국가?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동독의 과거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독, '90. 11) 어느 사람이 옳다고 보십니까?”

“동독은 처음부터 국민을 탄압하던 불법국가였다. 인간의 진정한 욕구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전기간동안 독재치하에서 살아왔다.” (A)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후 동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동독은 초기 몇년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최근 몇년동안에 접어들면서 중대한 오류가 범해졌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민사 당
A	34	49	41	23	15	1
B	59	44	50	70	74	98
잘 모르겠다	7	7	9	7	1	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대구모 탈출 >

0 질문: “현재 우리들에게 물려드는 대구모 동독인들을 오지 못하도록 ('89. 9) 제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제한해야 한다 (32%)
- 제한해서는 안된다 (48%)
- 잘 모르겠다 (20%)

0 질문: “최근 우리들에게 오는 동독인들이 쉽게 적응하리라 보십니까?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0 답변:

- 쉽다 (34%)
- 어렵다 (45%)
- 잘 모르겠다 (21%)

< 통일의 장애유무 >

0 질문: “귀하는 동독이주민들의 대대적인 물결이 통일의 호기를 맞게 ('89. 9)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통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는 이 사실과 통일과는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호기이다 (22%)
- 장애이다 (29%)
- 무관하다 (31%)
- 잘 모르겠다 (18%)

0 질문: “후일 역사교과서에 동독의 대규모 탈주사실이 독일의 민족적 거사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민족의 거사로 기록될 것이다 (59%)
- 그렇게 거사는 안된다 (23%)
- 잘 모르겠다 (18%)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나는 최근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자유스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왔다.” (A)

“나는 동독에 남아있으면서 그곳 생활을 올바르게 성립하려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경의를 표한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A	16	15	16	17	18
B	64	64	65	64	62
잘 모르겠다	20	21	19	19	20
계	100	100	100	100	100

< 동독의 자체적 시민권 >

0 질문: “만일 서독이 동독의 자체적 시민권을 인정하였다면 동독인들이 ('89. 9.) 서독시민으로서 서독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차라리 옳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독인들이 서독여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동독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15	10	8	20	16
서독여권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	54	63	63	47	58
잘 모르겠다	31	27	29	33	26
계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최근 수개월동안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들이 서독에 쉽게 정착
('90. 4)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귀하의 개인적인 견해를 차치할 때 대부분의 서독인들은 이주민
들이 쉽게 정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개인적 견해	예상하는 대중의 견해
쉽게 정착한다	58	78
그렇지 않다	26	9
잘 모르겠다	16	13
계	100	100

< 이주계획 >

0 질문: “귀하는 언젠가 서독으로 이주해볼 의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독이주를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습니까?”

0 답변: (단위: %)

년도 내용	'90. 3	'90. 7	'90. 8	'90. 11	'90. 12	'91. 2	'91. 10
확고한 의향이 있었다	1	1	1	1	1	1	2
염두에 두고 있었다	36	29	29	35	33	32	30
생각하지 않았다	63	70	70	64	66	67	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Honecker로부터 Krenz로 정권이양 >

0 질문: “현재 호네커는 모든 관직으로부터 물러났습니다. 호네커의 후임 ('89.10) 크렌츠가 집권하면 앞으로 동독의 진정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크렌츠취하의 SED가 진정한 개혁을 허용치 않을 것이므로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0 답변:

- 개혁이 단행된다 (37%)
-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40%)
- 잘 모르겠다 (23%)

< 이 주 민 >

0 질문: “귀하는 동독이주민과 개인적 접촉이 있습니까? ('90.4)

0 답변:

-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34%)
- 알지 못한다 (66%)

0 질문: “만일 동독이주민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 아래 도표에 각종 인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인성이 이주민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A)

“만일 동독이주민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 경우, 아래 도표에 각종 인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록 동독이주민과 개인적 접촉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성이 이주민들에게 적합하다고 추측하십니까?” (B)

0 답변:

(단위: 명)

이주민들의 인성	A	B
국가가 모든 것을 배려하며, 그들을 보호 하리라 기대한다	50	62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49	60
친절하고 호의적이다	44	25
우리와 다를 바 없다	43	39
소심하고 불안해 한다	42	34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42	27
남들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받아 들인다	39	39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9	39
선량하고 친절하다	36	21
확실한 노동자이며 직공이다	35	35
성실하다	33	21
매우 검소하다	33	29
단지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32	38
근면하다	30	26
유행과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29	36
우리와 아주 다르다	28	35
소외감을 느낀다	28	31
매우 겸손하다	26	19
좋은 이웃이다	24	15
종종 향수에 젖는다	24	26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21	32
불쾌한 사무리를 사용한다	20	31
다른 사람을 종종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다	17	18
서독인과의 접촉이 없다	15	19
일자리를 가질 의향이 없다	14	16
배울 점이 많다	11	8
	804	781
무응답	4	4

0 질문: “수많은 동독인들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동독을 떠나 우리 서독으로 오려고 합니다. 귀하는 우리들에게 오는 동독인들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89. 9	'90. 1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59	42
그렇지 않다	14	26
모르겠다	27	32
계	100	100

< 감 동 >

0 질문: “전적으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지난 수주일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있다	44	31	55	24	39	55	59
없다	56	69	45	76	61	45	4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참여의식 >

- 0 질문: “최근 수주일동안 동독에서는 개혁,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는 ('89.10) 시위와 항의농성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동독인들과 귀하의 관계는? 이 사실이 귀하를 감동시키는 정도는? 아래 온도계의 수치로 귀하의 열기를 표현해 주십시오.
100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동독인들이 귀하를 무척 감동시킴을 뜻하고 0도는 귀하가 이 사실로부터 전혀 감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대단히 감동적이다 (80-100)	54	54	55	48	51	52	66
감동적이다 (60-79)	26	27	24	28	29	29	17
보통이다 (40-59)	13	12	14	15	13	13	12
별로 무감동적이다 (0-39)	7	6	7	9	7	5	5
잘 모르겠다	-	1	-	-	-	1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온도지수	74.0	73.8	74.1	69.8	72.8	74.8	79.0

< 대변력 이전에 관하여 >

- 0 질문: “동독에서 조만간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89.10.)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관심도	
		16- 29	30- 44	45- 59	60 이상	유관 심자	무관 심자
확신한다	75	77	79	73	70	77	72
그렇지 않다	15	16	12	16	16	16	15
잘 모르겠다	10	7	9	11	11	7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수년 이내에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89.10)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유관심자	정치무관심자
기대한다	81	88	73
기대하지 않는다	8	6	11
잘 모르겠다	11	6	16
계	100	100	100

< 사회주의 업적 >

0 질문: “최근 동독에서는 수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에 열거된
(동독, ’90.3) 사항중 통일이후 계속 고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또한 이 사항중 어떤것이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것이 통일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까?” (B)

0 답변:

(단위: 명)

내 용	A	B
유치원에 어린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	55	75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도 후일 공부할 수 있는 것	55	60
실업자 없이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	51	78
국가가 청년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44	54
부동산과 집들이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귀속되는 것	34	46
모든 사회적 업적들을 보존하는 것	32	49
국유지를 사유지로 하지 않는 것	27	33
대중 교통수단이 저렴한 것	26	41
현장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것	26	26
전세값이 저렴한 것	24	43
생필품이 저렴한 것	24	33
국영업체가 사유로 되지 않는 것	15	23
기타	-	1
무응답	2	1
잘 모르겠다	7	1

0 질문: "동독의 모든 것이 나빠지는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독, '90. 3) 심지어 서독보다 나은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귀하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이 이룩한 사회주의 업적 내지 사회복지적 업적으로서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0 답변:

- 유치원, 탁아소, 학교급식, 출산휴가 (58명)
- 일자리 보장 (37명)
- 국민보건제도, 진료와 보호 (30명)
- 물가안정: 생필품, 전세값, 대중교통, 의약품 등 (30명)
- 청소년 보호, 직업교육, 교육기회의 보장 (16명)
- 안전성, 상부상조, 인간적인 분위기, 실존위기감이 없음. 냉랭하지 않은 분위기 (6명)
- 기 타 (7명)
- 무응답 (4명)

< 시 험 대 >

0 질문: “서독에 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서독의 어떤것이 홀름 (동독, '90. 3) 하다고 보십니까?” (A)

“서독의 어떤것이 귀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B)

0 답변:

- A: - 사회제도, 복지제도 (77명)
- 자유, 민주주의, 자유로운 생활감정, 자아의식 (22명)
- 청결성, 세련됨, 질서 (16명)
- 사회적인 성취, 사회보장, 사회적인 통로(도로망이나 전산망) (10명)
- 자유로운 여행, 관광 (8명)
- 현대화(경영기술, 건축기술) (5명)
- 교육, 직업교육, 승진기회 (2명)
- 환경보호 의식 (2명)
- 기 타 (1명)
- 무응답 (4명)

- B: - 실업 (28명)
- 비사회적, 비민주적 (27명)
- 마약문제 (18명)
- 고가의 생필수단(생필품, 전세값 등) (13명)
- 범죄 (11명)
- 극우주의, 신나치주의 (8명)
- 외국인 문제 (5명)
-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3명)
- 기 타 (12명)
- 무응답 (16명)

0 질문: “그토록 수많은 동독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독에서 (동독, '90. 3) 수행되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것이 진정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0 답변:

- 독일 화폐제도의 도입,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66명)
- 생활수준의 고양 (35명)
- 민주주의의 도입, 자유, 선거제도 (8명)
- 이주민들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2명)
- 기 타 (8명)
- 무응답 (4명)

0 질문: “현재 동독에는 수많은 새로운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동독, '90. 3) 사람들은 이를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유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여행의 자유, 그리고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여행의 자유와 상품구입의 자유와 비교할 때 귀하는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자유선거와 언론의 자유 (39%)
- 여행의 자유와 상품구입의 자유 (13%)
- 양자가 동등하게 중요 (39%)
- 잘 모르겠다 (9%)

< 자유의 가치 >

0 질문: “우리 서독으로 온 동독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높은 생활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89. 9	'90. 3
높은 생활수준	26	59
자유	60	28
잘 모르겠다	14	13
계	100	100

0 질문: “동독사람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자유, 법적안정성, 높은 생활 ('90. 7) 수준 가운데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 자유, 법적 안정성 (34%)
- 높은 생활수준 (58%)
- 잘 모르겠다 (8%)

0 질문: “동독사람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확고한 언론의 자유와 높은 (동독) 생활수준중 어느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3	'90. 9
확고한 언론의 자유	22	15
높은 생활수준	66	74
잘 모르겠다	12	11
계	100	100

< 견딜 수 없는 상태 >

0 구서독인에 대한 질문: “대변척이전 최근 수년동안 동독의 상태는 사실상 견딜만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야만 했다고 보십니까?” (A)

0 구동독인에 대한 질문: “대변척이전 최근 2년동안 동독에 관해 돌이켜 볼때 동독의 상태는 사실상 견딜만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

0 답변:

(단위: 명)

내 용		A			B		
		견딜만한 상황이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잘 모르 겠다	견딜만한 상황이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잘 모르 겠다
연도별	'90. 7	-	-	-	19	72	9
	'90. 10	-	-	-	22	70	8
	'91. 3	11	76	13	26	63	11
	'91. 8	11	77	12	22	69	9
	'92. 3	11	74	15	32	57	11
성 별	남자	11	76	13	29	61	10
	여자	10	72	18	36	54	10
연령별	16-29	11	70	19	28	60	12
	30-44	12	77	11	29	61	10
	45-59	10	77	13	39	54	7
	60이상	11	71	18	33	53	14
정 치 성향별	기민/ 기사당	9	76	15	22	70	8
	자민당	7	70	23	26	64	10
	사민당	13	74	13	38	52	10
	녹색당	13	68	19	31	53	16
	민사당	-	-	-	60	27	13

< 회 상 >

0 질문: “아래 도표에 과거 동독에 관해 논의된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
(동독, '92. 1) 니다. 이중 귀하의 견해에 따라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전주 민	연 령 별			
		16 -29	30 -44	45 -59	60 이상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열악한 경제상태를 알지 못했다	83	84	82	87	82
어느 누구도 Stasi와 SED의 행위가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78	82	77	75	78
처음부터 사회주의 편에 있었던 다수는 뭔가 재산을 원했고, 스스로를 전형으로 삼았다	74	67	72	76	79
SED가 우리 모두를 기만했다	70	66	70	73	71
애초에 사회주의에 대단한 희망을 부여했기에 모든 것이 다시 향상 될 것이다	62	48	56	73	71
주민들은 SED정권이 무너졌을 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60	63	57	60	59
다수는 SED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다	57	56	55	56	64
사람들은 동독에서 부자유하고 속박당한다고 느꼈다	54	56	56	55	48
사람들은 이 시기에 SED에 찬반유무의 선거를 치루지 못했다	52	52	48	57	52
다수는 사회주의 이상에 빠져 있었다	45	39	36	53	53
동독의 몰락과 함께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 졌다	44	32	42	50	52
처음에 SED는 많은 난제를 극복하여 사람들이 SED를 신뢰했다	44	35	39	46	57
동독의 붕괴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이상이 없어졌다고 완전히 불안해했다	43	36	38	50	48
이 시기에 사람들은 거대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매우 유쾌한 감정을 종종 느꼈다	42	35	40	49	46
사람들은 술에 취한 듯한 기분으로 누구도 믿지 않았다	39	38	38	43	38
동독의 정립 초기에는, 사람들이 동독의 시민으로서 명망을 갖출 수 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35	17	24	46	54
아무런 대응을 못한 채, 수많은 부당함을 방관하고 있던 것이 고통이었다	34	30	33	37	35

※ Stasi: 국가공안국 (SSD라고도 함)

SED: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

2. 통일에의 발전 추세 및 관점

2. 통일에의 발전추세 및 관점

- 0 질문: “오늘날 ‘독일인의 분단된 조국’에 관해 운운하는 사람에 대해 ('86. 2) 귀하는 이러한 표현이 현상태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의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적합한 표현이다	34	20	27	40	51
적절치 않다	52	65	61	46	34
잘 모르겠다	14	15	12	14	15
계	100	100	100	100	100

< 통일 장애요인 >

- 0 질문: “만일 유럽이 앞으로 수십년간 동·서 양진영으로 계속 분단상태에 ('86. 12.) 처해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달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0 답변:

- 가능하다 (10%)
- 불가능하다 (71%)
- 잘 모르겠다 (19%)

< 통일절망감 >

0 질문: “만일 어떤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쳐봅시다. ‘언젠가는 (’85. 12) 동·서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상호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평화질서가 정립될 것이며 독일의 분단 역시 끝날 것이다.’ 귀하는 어느날 이러한 상태가 도래하리라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착상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지 결코 통일달성의 목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0 답변:

- 단지 희망사항이다 (69%)
- 분단상황이 끝난다 (12%)
- 잘 모르겠다 (19%)

0 질문: “귀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주장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통일을 단순히 세월에 떠맡겨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56. 9	'58. 2	'59. 5	'64. 4	'83. 11	'84. 8	'89. 11
재차 장려 해야 한다	65	64	65	69	33	28	19
세월에 맡 겨야 한다	25	24	25	21	55	58	72
잘 모르겠다	10	12	10	10	12	14	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급박한 희망 >

0 질문: “귀하께서 동·서독 통일을 생전에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86. 12	'89. 9	'89. 12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다	7	23	51	51	56	61	38
아니다	76	54	24	22	22	18	33
잘 모르겠다	17	23	25	27	22	21	2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통일찬성도 >

0 질문: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귀하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통일이 귀하에게 그리 귀중한 것이 아닙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76. 1	'81. 7	'89. 9	'90. 3
진정한 소망이다	60	61	52	69
그리 중요치 않다	36	32	43	25
잘 모르겠다	4	7	5	6
계	100	100	100	100

- 0 질문: “독일의 분단극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86. 12) 아래에 분단극복에 관한 몇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독일의 분단극복에 타당성이 있고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
라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0 답변:

- 모든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74명)
- 언젠가 장벽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기에 (73명)
- 다수가 동독에 친척이 있기에 (73명)
- 우리는 독일인이기에 (70명)
- 언젠가 독일인끼리의 싸움은 중요치 않을 것이기에 (68명)
- 독일인끼리 분리해서 살 수 없기에 (57명)
- 영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56명)
- 동독인들이 더 개선된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50명)
- 유럽 전체의 결함을 위해 유럽의 동서분열은 극복되어야 하기에 (43명)
- 동독인들의 위기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38명)
- 지금 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 없기에 (38명)
- 우리의 동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37명)
- 분단은 단지 전쟁의 산물이고, 지금은 시효가 지나갔기에 (37명)
- 통일된 독일의 국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에 (29명)
- 중립적이고 비동맹국인 독일이 될 수 있기에 (27명)
- 이전의 서독의 동독원조가 허사로 되지 않도록 (16명)
- 동구권의 무력화를 위해 (10명)
- 독일 분단극복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 (6명)

< Reagan대통령의 베를린 방문 >

- 0 질문: “베를린시 창립 750주년 기념일에 미국의 Reagan대통령도 서베를린
(’87. 7) 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습
니까?”

0 답변:

- 예 (94%)
- 아니오 (6%)

o Reagan의 베를린 방문사실을 알고있던 사람에 대한 질문:

“Reagan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귀하께서는 Reagan대통령이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연설을 했는지 반대한다는 연설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A)

“Reagan대통령은 고르바초프에게 촉구하기를 베를린장벽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촉구는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주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B)

“귀하가 알고있는 한, Reagan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보십니까? 훌륭한 연설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C)

o 답변:

A: - 독일통일에 찬성했다 (66%)
- 반대했다 (2%)
- 잘 모르겠다 (32%)

B: - 부단히 제기되어야 한다 (56%)
- 소용없는 일이다 (36%)
- 잘 모르겠다 (8%)

C: - 훌륭한 연설이었다 (43%)
- 훌륭한 연설이 아니었다 (16%)
- 잘 모르겠다 (41%)

< 불 신 감 >

o 질문: “Erich Honecker는 서독을 방문했을때 말하기를 ‘만일 앞으로 양독일이 계속 평화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면 어느날 동·서독 국경은 더이상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호네커가 대서독 국경을 조만간 개방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호네커가 단지 무분별한 발언을 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개방의 예고이다	15	12	12	19	22
무분별한 발언이다	58	65	62	53	46
잘 모르겠다	27	23	26	28	32
계	100	100	100	100	100

< 제3의 통일방법 >

0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칩시다. 독일통일을 위해 ('87. 11) 서는 동·서독 양측이 서로 각각 정치제도중 일부를 수정한 후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귀하는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0 답변:

- 동의한다 (42%)
- 반대한다 (30%)
- 잘 모르겠다 (28%)

0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면 귀하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비록 독일통일이 즉시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자		
		매 우	상당히	별 로
동의한다	61	75	68	39
반대한다	20	7	14	11
잘 모르겠다	19	18	18	22
계	100	100	100	100

0 질문: “동독인들이 통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89. 12) 동독인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은 독자적인 국가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 통일을 원한다 (42%)
- 독자적인 국가를 원한다 (37%)
- 잘 모르겠다 (21%)

< 기본법 전문 >

0 질문: “기본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전독일민족은 자유스런 자결권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가 달성될때까지 진력할 것이 촉구된다.’ 과연 이 문장이 기본법에 계속 담겨져 있어야 할지 아니면 기본법으로부터 삭제되어야 할지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73.4	76.1	78.1	79.5	82.7	83.11	85.3	88.7	89.1
존속되어야 한다	73	72	75	76	77	79	72	69	75
삭제되어야 한다	11	12	11	10	9	7	13	16	12
잘 모르겠다	16	16	14	14	14	14	15	15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89. 1. 답변 기본조사표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존속되어야 한다	75	66	70	80	84	83	78	72	47
삭제되어야 한다	12	15	18	9	5	6	14	13	30
잘 모르겠다	13	19	12	11	11	11	8	15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 구동독인에 대한 질문: “기본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90. 12)

‘전독일 민족은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가 달성될 때까지 진력할 것이 촉구된다.’

“귀하는 서독의 기본법 전문에 이 문장이 있는지 알았습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당	자민당	사민/녹색당	기사당
예	21	16	22	26	19	18	21	21/22	32
아니오	79	84	78	74	81	82	79	79/78	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100	100

- 0 기본법 전문의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한 질문:
 “통일전 기본법의 이 문장이 귀하에게 주는 의미가 컸습니까?
 아니면 이 문장의 의미가 있으나마나한 것이었습니까? 또는
 기본법의 이 문장이 귀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당	자민당	사민/녹색당	기사당
중요했다	54	41	57	54	63	79	55	55/31	7
그저 그랬다	33	31	38	39	21	17	40	27/47	67
방해했다	6	12	3	3	8	1	-	10/6	19
잘 모르겠다	7	16	2	4	8	3	5	8/16	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100	100

< 평화보장 >

- 0 질문: “독일의 분단상태 또는 통일달성 여하에 따라 세계평화의 개선여부에 ('89. 10) 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귀하는 어떤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어떤 국가가 그 의지에 반대되는 분단상태에 처해있으면 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이야말로 국제평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통일독일은 국력이 너무 강하게 될 것이며 국제간 세력균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분단상태가 더 낫다’ (B)

0 답변:

- A (61%)
- B (16%)
- 잘 모르겠다 (23%)

< 독일통일에 대한 인접국의 반응 >

- 0 질문: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분단상태 또는 통일달성 여하에 따라 세계평화의 개선여부에 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일 어떤 국가가 그 의지에 반대되는 분단상태에 처해있으면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이야말로 국제 평화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통일독일은 국력이 너무 강하게 될 것이며 국제간 세력균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분단 상태가 더 낫다.’ (B)

“귀하는 이 두가지 견해중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 0 답변:

(단위: %)

국 가		통일이 더 낫다	분단상태가 더 낫다	잘 모르겠다	계
프랑스	'84. 2	43	25	32	100
	'89. 9-10	68	16	16	100
영 국	'84. 2	51	26	23	100
	'89. 9-10	62	23	15	100
이태리	'89. 9-10	66	18	16	100
스페인	'89. 9-10	45	33	22	100
네델 란드	'89. 9-10	62	21	17	100
스웨덴	'89. 9-10	71	17	12	100
미 국	'84. 2	54	31	15	100
	'89. 9-10	36	42	22	100
일 본	'89. 9-10	38	7	52	100

0 질문: “귀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4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89.12) 독일통일에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4대 전승국이 독일 통일을 방해하리라 보십니까?”

- 0 답변:
- 동의할 것이다 (27%)
 - 방해할 것이다 (46%)
 - 잘 모르겠다 (27%)

0 질문: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독일통일이 달성 ('89.9-10) 되리라 확신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국 가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계
프랑스	60	18	22	100
영국	59	25	16	100
이태리	58	19	23	100
스페인	50	20	29	100
네델란드	52	31	17	100
스웨덴	54	30	16	100
미국	49	26	25	100
일본	18	31	51	100

< 통일시점 >

0 질문: “동·서독이 통일되리라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A) ('89.12)

만일 확신할 경우, “과연 언제, 언제정도에 통일될 것으로 믿습니까?” (B)

0 답변:

- A: - 통일된다 (43%)
 - 안된다 (32%)
 - 잘 모르겠다 (25%)

- B: - 1990년말까지 (11%)
- 1, 2년 더 지나서 (10%)
 - 2, 3년 더 지나서 (7%)
 - 3, 4년 더 지나서 (3%)
 - 4, 5년 더 지나서 (17%)
 - 5, 10년 더 지나서 (22%)
 - 10, 20년 더 지나서 (5%)
 - 20년 이상 지나서 (1%)
 - 상당기간 소요되어 예측할 수 없다 (15%)
 - 기 타 (1%)
 - 잘 모르겠다 (8%)

< 광범위한 통일지지 >

o 질문: “매우 일반적 질문입니다. 귀하는 독일통일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86. 12	'87. 8	'89. 12	'90. 2	'90. 3	'90. 7
찬성한다	65	66	62	69	84	74
반대한다	11	13	17	11	6	11
잘 모르겠다	24	21	21	20	10	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중립주의 >

o 질문: “다음과 같은 조건하의 독일통일에 관한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서독은 NATO로부터 탈퇴한다.’

‘통일독일은 중립국가로서 동맹체제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통일독일의 사회제도는 자유비밀선거를 통해 스스로 결정된다.’

“귀하는 이러한 조건하의 독일통일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78. 9	'79. 5	'80. 7	'81. 5	'84. 3	'87. 7	'89. 10	'90. 1
찬성한다	38	49	47	54	53	56	46	46
반대한다	34	26	27	24	26	24	24	27
잘 모르겠다	28	25	26	22	21	20	30	2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귀하는 동·서독을 망라하는 독일의 단일국적제도를 고수하는 것에 ('89. 12)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점을 기해 독일의 단일국적제도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고수하는 것에 찬성한다	60	68	64	55	43
폐지되어야 한다	17	12	15	20	28
잘 모르겠다	23	20	21	25	29
계	100	100	100	100	100

< 통일우선주의 >

0 질문: “우리는 동독의 사태가 지난 바로 지금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89. 12) 보십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0 답변:

- 바로 지금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40%)
-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43%)
- 잘 모르겠다 (17%)

0 지금은 통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
“그렇다면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0 답변:

- 우선적으로 동독의 경제건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29명)
- 우리의 간섭없이 동독의 자생적인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24명)
- 국가연합 추구 (15명)
- 동독의 민주화 (13명)
- 통화가치의 안정 (8명)
- 동독 주민에 대한 배가된 부양책과 생활수준의 고양 (8명)
- 동맹관계와 통화가치에 대한 협약 체결 (4명)
- 우리 자신의 문제에 역점 (4명)
- 기 타 (4명)
- 무응답 (6명)

< 통독 10대강령 >

0 질문: “11월말 헬무트 콜총리는 연방의회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10대강령을 ('89.12)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들었거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A)

만일 이 사실을 들었거나 읽었을 경우, “콜총리는 이 강령을 통해 통일달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곧 경제지원, 조약 공동체, 국가연합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독일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귀하는 10대강령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B)

“10대강령에 개진된대로 통일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

0 답변:

A: - 있다 (78%)
- 없다 (22%)

B: - 동의한다 (47%)
- 반대한다 (21%)
- 잘 모르겠다 (32%)

C: - 달성된다고 예상한다 (42%)
- 반대한다 (29%)
- 잘 모르겠다 (29%)

0 10대강령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문: “여기 세사람이 콜총리의
(‘89.12) 10대강령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세사람의
견해중 어느 사람의 견해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이 계획은 매우 장기적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먼훗날의
사안이 될 것이다. 가능한한 신속하게 합의점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

‘나는 이 계획이 훌륭하다고 본다. 동독에서 우선 심각한 문제점이
해결된다음 동·서독은 서서히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독일통일은 직접 결정하기에는 동·서독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B)

‘이 시점에 통일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동독사태가 일단 어떻게
진전되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대측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될 것이다’ (C)

0 답변:

A: 6%

B: 48%

C: 38%

잘 모르겠다: 8%

< 통일론 분열 >

0 질문: “동·서독을 위한 최상의 길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입니까?
(’89. 12.) 국가연합입니까? 또는 두개의 국가로 분단된 상태입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하나의 국가	37	47	22	29	24
국가연합	31	27	47	36	30
분단된 국가	19	13	19	23	27
잘 모르겠다	13	13	12	12	19
계	100	100	100	100	100

< 동독의 서독가입 >

0 질문: “동·서독 통일의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90. 2)

‘동·서독간의 신헌법제정 및 전독 국민투표를 통한 통일’ (A)
‘동독의 Sachsen이나 Thuringen과 같은 구 연방주가 동독내 합외 및 기본법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통합’ (B)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 29	30- 44	45- 59	60 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A	38	42	38	35	35	33	42	40	43
B	44	40	48	49	42	49	46	43	29
잘 모르겠다	18	18	14	16	23	18	12	17	2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권문제 >

0 질문: “신문에서 보면 미래의 통일독일을 위해 완전한 주권이 요구된다고 ('90. 7) 합니다. 귀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매모호합니까?”

0 답변:

서독 : - 잘 알고 있다 (52%)
- 모른다 (48%)

동독 : - 잘 알고 있다 (57%)
- 모른다 (43%)

0 완전한 주권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
“독일의 주권문제에 관한 회담이 장기 지속될 경우이면 통일을 우선 달성한 다음 후일 주권문제에 관해 협의하느냐? 또는 주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회담사안으로 종결시킨다음 통일을 달성하느냐 라는 점에 관한 귀하의 견해는?”

0 답변:

서독 : - 선통일 후주권 (47%)
- 선주권 후통일 (35%)
- 잘 모르겠다 (18%)

동독 : - 선통일 후주권 (53%)
- 선주권 후통일 (36%)
- 잘 모르겠다 (11%)

< 통일에의 전망 >

0 질문: “다음 도표에 독일통일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나열되어 (서독, '90. 2)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것이 일어나리라 예상하십니까?”

더 추가하여 질문드리자면, “과연 통일을 위해 이와같은 변화가 감내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감내할 필요가 없는지? 또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인지요?”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예상된 변화	감내 해야할 변화	책임질 수 없는 변화	모르겠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상승	75	27	39	7
불충분한 주거공간	71	19	44	7
사회보장 보험의 세율상승	61	26	27	6
과중한 국가부담	61	23	31	7
동, 서독인간의 긴장감 발생	47	18	21	7
신용대부의 어려움, 대부율의 상승	47	24	17	5
통화 불안정	45	15	23	6
높은 실업률	39	7	29	3
복지후생비(자녀부양비, 주택수당 등)의 감소	38	8	27	3
극우, 극좌파의 횡행	37	9	22	6
연금의 불안정	35	3	28	3
일시적인 임금인상 불가	34	21	10	3
독일 통화의 가치하락	29	9	17	3
독일 정치에 좌파성향의 대두	21	9	8	5
인플레이션	14	2	10	2
주당근무시간의 연장	13	9	3	1
수출감소	12	6	4	2
부자유한 취업선택	10	2	6	1
초과 근무시간의 빈번한 발생	9	5	2	1
정치체제에 사회주의의 투입	8	3	4	1

0 질문: "통일이 너무 급속히, 너무 완만하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진행되고 (동독, '90. 7) 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 : - 너무 성급하다 (52%)
 - 너무 완만하다 (3%)
 - 시의적절하다 (34%)
 - 잘 모르겠다 (11%)

동독 : - 너무 성급하다 (44%)
 - 너무 완만하다 (16%)
 - 시의적절하다 (35%)
 - 잘 모르겠다 (5%)

< 독·소 회담 >

0 질문: “콜총리는 얼마전 소련을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 ('90. 8) 사실을 들었거나 신문지상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0 답변:

- 있다 (84%)
- 없다 (16%)

0 콜총리의 소련방문에 관해 들었거나 읽어본 사람들에 대한 질문 (1):

“고르바초프와의 대화를 통해 각종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았는데 귀하는 어떤 것을 찬성하고 어떤것을 반대하십니까?”

“동독 국경에 배치한 소련군대를 약정에 따라 1994년까지 철수함” (A)

“독일통일이후 독일과 소련은 방대한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는 불가침조약, 정치·경제교류의 강화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B)

“통일독일은 완전주권을 회복한다. 따라서 별도의 평화조약은 불필요하다.” (C)

“고르바초프는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D)

“독일은 방대한 경제프로그램을 통해 소련을 지원한다.” (E)

0 답변:

(단위: %)

내 용	A	B	C	D	E
찬성한다	90	84	80	79	62
반대한다	3	3	7	7	16
잘 모르겠다	7	13	13	14	22
계	100	100	100	100	100

0 콜총리의 소련방문에 관해 들었거나 읽어본 사람들에 대한 질문(2) :

“귀하는 콜총리와 고르바초프간의 합의사안을 전후 정치의 전환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전환점이다	72	80	73	67	48
아니다	13	7	18	17	31
잘 모르겠다	15	13	9	16	21
계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타 데 메지에르는 말하기를 동독시민들이 40년 동안이나 독일역사의 어려웠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왔기에 동독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서독인들 역시 부담을 짊어질 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독('90. 4.)	동독('90. 7.)
동의한다	27	78
동의하지 않는다	55	10
잘 모르겠다	18	12
계	100	100

< 희생 각오 >

0 질문: “서독인들이 통일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 분명하 (서독, '90. 3) 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상류층	중 산 층		단순노동계층
			사무직	수공업자	
필요하다	55	60	52	56	42
필요없다	27	27	26	28	28
잘 모르겠다	18	13	22	16	30
계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통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90. 2)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통일은 동·서독의 민족적 과제이다. 현시점에 통일비용을 응졸 하게 계산할 때가 아니다.’ (A)

‘나는 무엇보다도 현시점에 통일비용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서독이 달성해논 것을 도박에 부칠 수는 없다. 통일은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A	B	잘모르겠다	계
구 분					
전 주민		21	66	13	100
성 별	남	22	65	13	100
	여	20	67	13	100

연령별	16-29	12	77	11	100
	30-44	23	63	14	100
	45-59	25	62	13	100
	60이상	25	62	13	100
교육 수준별	국졸	18	70	12	100
	중등졸	23	65	12	100
	대졸	29	54	17	100
정치 성향별	기민/기사당	28	61	11	100
	자민당	22	67	11	100
	사민당	16	70	14	100
	녹색당	17	64	19	100

0 질문: “통일때문에 우리는 각종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동독 ('90.10) 재건을 위한 서독인들의 희생정신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희생정신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서 독 >

(단위: %)

내 용	전 주 민	성 별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크다	21	20	22	17	17	24	26	28	15	17	8
크지 않다	65	68	63	70	71	59	61	58	70	69	83
모르겠다	14	12	15	13	12	17	13	14	15	14	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독 >

(단위: %)

내 용	전주 민	성 별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남	여	16- 29	30- 44	45- 59	60 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민사 당
크다	14	15	13	15	8	9	25	23	5	6	-	14
크지 않다	65	63	68	59	74	74	55	55	75	70	84	82
모르겠다	21	22	19	26	18	17	20	20	20	24	16	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서독인들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은 대단합니까? 또는 동질감이나 연대의식이 충분치 못합니까?”

0 답변:

< 서 독 >

(단위: %)

내 용	전주 민	성 별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남	여	16- 29	30- 44	45- 59	60 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대단하다	27	23	29	21	24	30	31	36	20	19	17
충분하지 않다	58	62	56	64	60	60	50	48	52	69	67
모르겠다	15	15	15	15	16	10	19	16	28	12	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독 >

(단위: %)

내 용	전 주 민	성 별		연 령 별				정 치 적 성 향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대단하다	16	18	14	17	22	10	14	25	8	14	4	3
충분하지않다	64	59	68	59	57	73	67	58	44	66	86	79
모르겠다	20	23	18	24	21	17	19	17	48	20	10	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희생정신 >

o 질문: “독일 통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하 자신이 개인적으로 ('90.10) 무엇인가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준비가 되어 있다	40	55
뭔가를 착수하고 있다	6	5
준비되어 있지 않다	29	11
잘 모르겠다	25	29
계	100	100

0 질문: 만일 희생할 용의가 있을 경우,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득	동 득
금전적 도움	19	7
동독에서 함께 일하기	2	16
명예직의 활동을 맡음	2	5
기 타	4	3
구체적 제시가 없음	19	29
무응답	54	40
계	100	100

< 통일정책에 대한 동의여부 >

0 질문: “통일을 위한 대안마련 및 준비대책, 즉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연방정부의 통일정책 및 준비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득		동 득	
	'90. 7	'90. 10	'90. 7	'90. 10
동의한다	47	54	54	60
반대한다	30	25	22	19
잘 모르겠다	23	21	24	21
계	100	100	100	100

0 질문: “얼마전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독인들이 (서독, '90. 9) 이정도의 풍요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동독인들은 망각하고 있다.’ 귀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적 성향별			
		16-29	30-44	45-59	60 이상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동의한다	74	60	75	80	81	79	66	73	54
반대한다	15	21	17	13	10	12	21	17	22
잘 모르겠다	11	19	8	7	9	9	13	10	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좌우지간 통일에 관계되는 한 귀하의 개인적 기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다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곳 서독인 대부분의 기분이 통일에 관계되는 한 편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동독인 대부분의 통일에 관한 기분이 편안하다고 보십니까? 불편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개인적 기분 >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편안하다	50	59
좋지 않다	33	27
잘 모르겠다	17	14
계	100	100

< 서독인 대부분 기분 >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편안하다	41	29
좋지 않다	39	44
잘 모르겠다	20	27
계	100	100

< 동독인 대부분 기분 >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편안하다	61	51
좋지 않다	20	26
잘 모르겠다	19	23
계	100	100

< 10월 3일 독일통일절에 관하여 >

o 질문: “10월 3일 독일통일의 날로 되돌아가 봅시다. 귀하 자신에게 ('90.10) 환희가 넘치는 역사적 일대사건이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겠습니까?”

o 답변:

< 서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다	58	58	58	40	54	67	73
아니다	27	28	27	39	32	24	15
잘 모르겠다	15	14	15	21	14	9	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다	67	70	65	63	69	68	70
아니다	22	19	24	23	24	21	18
잘 모르겠다	11	11	11	14	7	11	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 질문: “10월 3일은 동·서독 통일과 더불어 새로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90.10) 귀하는 10월 3일 통일절 공식행사에 참석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축제를 올렸습니까?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o 답변:

< 서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참석했다	9	12	7	7	13	8	7
개인적으로 기념했다	19	18	19	19	22	16	18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68	65	70	67	61	72	73
무응답	4	5	4	7	4	3	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참석했다	13	18	9	19	18	9	4
개인적으로 기념했다	36	43	30	40	34	43	27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50	38	61	40	48	48	69
무응답	1	1	-	1	-	-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참여의식 >

o 질문: “독일이 통일되던 순간, 즉 10월 2일 저녁부터 10월 3일까지 귀하 ('90.10.) 의 체험은? TV나 라디오를 통해 통일에 관한 방송을 경청했습니까? 아니면 통일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까? 또는 통일축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까?”

o 답변:

< 서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방송을 청취했다	50	47	53	36	43	60	63
통일행사에 참석했다	6	6	5	5	10	4	3
다른 방법으로 기념했다	9	9	9	15	8	8	4
별다른 관심 없었다	30	32	28	36	34	24	27
무응답	5	6	5	8	5	4	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독 >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방송을 청취했다	55	55	55	41	50	58	74
통일행사에 참석했다	10	13	8	20	13	5	-
다른 방법으로 기념했다	14	16	11	21	12	15	4
별다른 관심 없었다	20	15	25	18	22	20	22
무응답	1	1	1	-	3	2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 질문: “10월 3일 이후 분위기가 독일통일달성으로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동독, '90.10)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분위기가 다르다	49	52	45	40	56	49	50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39	36	42	53	34	37	32
잘 모르겠다	12	12	13	7	10	14	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국경개방이후 이곳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상품 (동독) 공급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나 주민들의 정치적 분위기 말입니다. 현재 이곳 사람들이 더욱 자유스러워졌고 덜 강요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3	'90. 5	'90. 10
보다 자유롭고 덜 구속적이다	21	72	66
그렇지 않다	44	18	19
잘 모르겠다	35	10	15
계	100	100	100

< 자 유 >

0 질문: “구동독 공산정권 (SED 정권) 이 쓰러지고 국경이 개방되었던 (동독, '90. 10)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이래 귀하의 개인생활영역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0 답변:

- 자유 (64명)
- 여행의 자유 (52명)
- 언론의 자유 (21명)
- 물품구매의 가능성과 공급물량 (38명)
- 미래에 대한 불안 (19명)
-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직난 (13명)
- 사회적 불안감 (5명)
- 실업자가 되거나 단축조업 노무자가 된다 (6명)
- 법치국가로의 원상복귀 (1명)
- 기 타 (7명)
- 무응답 (10명)

o 질문: “구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돌이켜볼때 귀하는 (동독, '90. 11)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o 답변: (단위: %)

내 용		해방감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	잘모르겠다	계
구 분					
전 주 민		68	17	15	100
성 별	남	69	16	15	100
	여	68	18	14	100
연령별	16-29	74	15	11	100
	30-44	64	17	19	100
	45-59	71	17	12	100
	60이상	63	19	18	100
종교별	신 교	82	9	9	100
	구 교	77	11	12	100
정 치 성향별	기민당	87	5	8	100
	자민당	65	10	25	100
	사민당	58	28	14	100
	녹색당	58	21	21	100
TV방송 을 본 사람	서독TV	81	10	9	100
	동독TV	50	29	21	100
	양독TV	60	21	19	100

< 장벽조각 >

o 질문: “베를린장벽은 철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의 한조각을 ('91. 8) 기념품으로 집에 갖고 갔습니다. 귀하도 집에 장벽조각이 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장벽조각이 있다	12	16
장벽조각이 없다	88	84
계	100	100

0 질문: 만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만일 귀하께서 장벽 한조각을 얻을 경우 이를 기념품으로 보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벽조각이 귀하에게 기념품이 될 수 없겠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기념으로 보관한다	31	32
기념으로 여기지 않는다	56	52
잘 모르겠다	13	16
계	100	100

< 한 민 족 >

0 질문: “독일통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구호를 ('90.11) 들을때 귀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그렇게 느낀다	54	45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33	46
잘 모르겠다	13	9
계	100	100

< 독일의 전망 >

0 질문 (각종 정치적 측면에 관한 도표의 목록에 연관된 질문임):
 (서독, '91. 2) “여기 다음과 같은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은 다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0 답변:

(단위: %)

내 용	일치	불 일치	반반	무 응답	계
통일독일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것이 이전 서독에서와 유사하게 유지	58	13	27	2	100
최대의 전쟁위험은 장차 주들간의 빈부격차에서 발생	57	10	29	4	100
세상의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면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57	13	27	3	100
통일의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현실화된다	54	12	31	3	100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합을 예견해 주고 있다	46	13	38	3	100
연방정부는 시민들을 통일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	43	17	35	5	100
나는 독일의 통일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그것을 이해한다	42	21	35	2	100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근면하고 유능하기에 부유하다	41	23	33	3	100
제3세계의 난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38	23	36	3	100
우리에게 지속적인 유럽 통합정책은 필연적이다	35	21	40	4	100
중립국으로서의 독일은 동, 서 양진영을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2	28	36	4	100

내 용	일치	불 일치	반반	무 응답	계
우리는 양독의 최종적인 통일과 더불어 여전히 뭔가를 기대해야 한다고 본다	30	43	25	2	100
통독시 서독인들은 불이익만을 당했다고 본다	27	33	38	2	100
통독후 우리는 결국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7	31	39	3	100
통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차대전의 패배를 극복한다	26	33	38	3	100
나는 여러 민족의 인종이 한 나라에서 공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26	30	41	3	100
나는 독일인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20	52	25	3	100
독일은 장차 어떠한 동맹조직에도 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19	46	31	4	100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복지생활을 담보로 감행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17	47	30	6	100
우리는 독일민족을 순수한 인종으로 유지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13	63	20	4	100
환경문제는 인위적으로 과대평가 된다	9	69	19	3	100

< 낙 관 론 >

- 0 질문: “미래의 통일전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귀하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걱정스럽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90.9	'90.10	'90.11	'90.9	'90.10	'90.11
낙관적이다	49	57	52	69	64	60
걱정스럽다	40	29	29	18	24	24
잘 모르겠다	11	14	14	13	12	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뜻밖의 일 >

0 질문: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볼때 귀하는 구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나리라 예상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뜻밖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91.3	'90.3	'91.3
그러한 전개를 예상했다	3	5	7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상 못했다	16	18	33
완전히 뜻밖의 일이었다	77	76	57
잘 모르겠다	4	1	3
계	100	100	100

0 질문: “구동독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운동이 서서히 강화되었다고 (동독, '90. 3)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조짐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치 유관심자	정치 무관심자
		16- 29	30- 44	45- 59	60 이상		
서서히 강화되었다	53	56	53	54	49	60	39
그런 조짐이 없었다	40	37	41	39	43	36	48
잘 모르겠다	7	7	6	7	8	4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환희 또는 불안 >

0 질문: “귀하에게 독일통일은 환희의 동기였습니까? 아니면 불안의 동기였습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구 분	환희의 동기	불안의 동기	잘모르겠다	계
'90. 4	50/ -	27/ -	23/ -	100/100
5	43/62	37/23	20/15	100/100
7	51/ -	33/ -	16/ -	100/100
8	50/61	33/24	17/15	100/100
9	52/61	31/22	17/17	100/100
10	58/63	26/20	16/17	100/100
11	57/65	25/19	18/16	100/100
12	59/65	25/20	16/15	100/100
'91. 1	56/57	25/23	19/20	100/100
2	49/59	32/24	19/17	100/100
3	45/51	37/33	18/16	100/100
4	44/59	39/26	17/15	100/100

5	47/62	32/19	21/19	100/100
6	44/59	36/21	20/20	100/100
7	52/68	32/16	16/16	100/100
8	49/61	35/22	16/17	100/100
9	52/56	33/24	15/20	100/100
10	48/58	36/23	16/19	100/100
11	45/59	34/22	21/19	100/100
'92. 1	45/56	36/23	19/21	100/100
2	45/59	37/23	18/18	100/100
3	41/58	39/23	20/19	100/100
4	40/54	41/27	19/19	100/100
5	43/58	39/25	18/17	100/100
7	36/57	46/25	18/18	100/100
8	41/59	42/24	17/17	100/100
9	36/60	44/22	20/18	100/100
10	39/57	40/23	21/20	100/100

<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 >

0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기전에 무엇이 백일하 ('92. 3) 에 드러나고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차라리 장벽붕괴 이전상태가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귀하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 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동의한다	21/ 9	23/ 7	21/ 8	21/ 9	19/16	17/ 6	15/ 5	23/10	18/ 9	-/32
반대한다	66/73	64/77	59/77	66/69	73/67	70/85	67/74	63/74	72/66	-/20
잘모르겠다	13/18	13/16	20/15	13/22	8/17	13/ 9	18/20	14/16	10/25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 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동의한다	21/ 9	23/ 7	21/ 8	21/ 9	19/16	17/ 6	15/ 5	23/10	18/ 9	-/32
반대한다	66/73	64/77	59/77	66/69	73/67	70/85	67/74	63/74	72/66	-/20
잘모르겠다	13/18	13/16	20/15	13/22	8/17	13/ 9	18/20	14/16	10/25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통일의 발단 >

0 질문: “통일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독에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고 (동독, '91. 10) 궁극적으로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누가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아래에 각종 사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변혁 과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정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0 답변:

- Neue Forum (66명)
- 시민 (64명)
- 교회 (62명)
- 구소련 (51명)
- 동맹 90 (43명)
- 헝가리 (38명)
- Runde Tisch (37명)
- 본의 연방정부 (33명)
- 작가와 예술가 (32명)
- 서독의 기민당 (23명)
- 민주주의 개척 (23명)
- 자유 기금 (22명)
- 평화단체 (20명)
- 데 메지에르 정부 (19명)

- 서독의 사민당 (12명)
- 자민당 (11명)
- 동독의 기민당 (10명)
- 모드로프 정부 (10명)
- 녹색당, 환경보호단체 (9명)
- 동독의 민사연 (8명)
- 독일민주여성동맹 (DFP) (8명)
- 동독의 사민당 (7명)
- 이전의 통일사회당의 일부와 오늘의 민사당 (5명)
- 동독의 자민당 (4명)
- 노동조합 (3명)

< 우선순위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서독)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순간 들리는 것은 온통 구동독지역의 문제점 투성이지, 우리의 고민은 그 어느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내 생각으론 우리 주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본다.” (A)

“독일통일은 현시점의 가장 중대사안이다. 현 상황은 오로지 유일무이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문제점은 사실상 우리의 문제점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구동독지역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90. 9	'91. 8	'92. 1
A	46	53	46
B	42	32	42
잘 모르겠다	12	15	12
계	100	100	100

3. 통독에 따르는 문제점

3. 통독에 따르는 문제점

- 0 질문: “최근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습니다.
 ('90.10) ‘우리가 다시금 통일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때문에 나의 환희감이 희석되지는 않는다.’
 귀하역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게 느낀다	43/49	25/32	42/52	48/53	58/60
그렇지 않다	39/40	54/53	43/39	33/35	27/32
잘 모르겠다	18/11	21/15	15/ 8	19/12	15/ 8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절호의 기회 >

- 0 질문: “통일로 발생가능한 각종 사안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독, '90. 2) 귀하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0 답변:

- 독일이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해진다 (53명)
- 우리는 다시금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낀다 (44명)
- 독일은 세계간의 국제 운동경기에서 정상을 정복한다 (39명)
- 우리는 다시금 베를린을 수도로 삼는다 (37명)
-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실업률이 감소된다 (36명)
- 독일이 유럽의 주도권을 잡는다 (35명)

- 새로운 경제기적의 가능성이 있다 (28명)
- 우리는 더이상 열강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 (26명)
- 독일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16명)
-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12명)
- 연금제도가 보다 안정된다 (11명)
- 무응답 (8명)

< 통일비용 >

0 질문: “현시점에 통일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독, '90. 9)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현재 산정할 수 있다 (8%)
- 정부나 국가의 소관이다 (83%)
- 잘 모르겠다 (9%)

0 질문: “동독을 지원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대사안
(서독, '90. 2) 이라고 한다면 모든 서독시민은 어느정도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정 치 적 성 향 별			
		16- 29	30- 44	45- 59	60 이상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개개인이 기 여해야 한다	41	37	43	39	44	45	40	38	36
정부나 국가 의 소관이다	46	48	41	51	44	44	41	48	47
잘 모르겠다	13	15	16	10	12	11	19	14	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임금세 및 소득세에 대한 보충세, 즉 일종의 추가세금 도입이 (서독, '90. 2)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동독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귀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별세 납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특별세 납부를 거부, 즉 귀하의 소득중 일부를 양보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구 분		내 용	동의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 주 민	23	58	19	100
성 별	남		24	57	19	100
	여		22	58	20	100
직업별	숙련공		12	73	15	100
	전문직 노동자		16	66	18	100
	단순직사원/관리		25	58	17	100
	관리직사원/관리		35	41	24	100
	자영업자/자유직종		27	44	29	100
	농 부		30	47	23	100
정치적 성향별	기민/기사당		27	52	21	100
	자민당		32	46	22	100
	사민당		17	66	17	100
	녹색당		18	58	24	100

< 세금인상 >

0 질문: “귀하는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인상에 동의 (서독)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9	'90. 11	'91. 3
찬성한다	10	13	28
반대한다	76	75	57
잘 모르겠다	14	12	15
계	100	100	100

0 질문: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90. 10) 아니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44	29
세금인상없이 가능하다	39	49
잘 모르겠다	17	22
계	100	100

0 질문: “통일비용 조달에 세금인상을 고려하십니까? 아니면 고려하지
않습니까?”

0 답변:

내 용	서 독	동 독
세금인상을 고려한다	78	66
그렇지 않다	10	18
잘 모르겠다	12	16
계	100	100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독일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 양호한 경제현황과 절감대책만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는 없다.’ (A)

‘세금인상을 통해 경제의 호경기상태에 제동이 걸려 세금인상을 통한 수입보다 경제적 불이익이 더욱 커진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90. 10	'91. 3	'90. 10	'91. 3
A	42	56	42	51
B	32	25	32	28
잘 모르겠다	26	19	26	21
계	100	100	100	100

< 통일비용 산정가능성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독일통일비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91. 3.)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재건에 과연 어느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지난 몇년동안 도저히 산정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시점에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 (A)

‘고액의 통일비용을 경고하는 여론이 도처에 산재했다. 우리가 짊어질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이미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알려졌어야만 했다. 선거이전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문제를 간과해 버렸다.’ (B)

0 답변:

- 서독: A (24%), B (64%), 잘 모르겠다 (12%)
- 동독: A (24%), B (74%), 잘 모르겠다 (2%)

< 연대협약 >

- 0 질문: “7월초부터 세금을 징수할때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기여금이 과세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한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기여금 지불에 찬성한다. 독일통일이야말로 역사적 기회이므로 연대협약 기여금 지불에 동의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세금인상에 반대한다. 주택임대료, 휘발유, 기타 물가의 인상때문에 담세자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 세금부담이 단숨에 너무 커져버렸다.’ (B)

귀하의 생각에 가장 근접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 0 답변:

- 서독: A (33%), B (54%), 잘 모르겠다 (13%)
- 동독: A (36%), B (49%), 잘 모르겠다 (15%)

- 0 질문: “7월1일부터 더이상 연대협약 기여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결정되었습니
(’92. 2) 습니다. 그런데 이제금 구동독지역 지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12개월동안 다시한번 연대협약 기여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구 분	내 용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잘모르겠다	계
전 주 민		35/58	46/20	19/22	100/100
연령별	16 - 29	29/54	52/25	19/21	100/100
	30 - 44	38/58	48/23	14/19	100/100
	45 - 59	34/63	51/19	15/18	100/100
	60 이상	40/57	34/11	26/32	100/100

정 치 성 향 별	기민/기사당	43/64	38/15	19/21	100/100
	자민당	44/54	36/15	20/31	100/100
	사민당	28/60	52/19	20/21	100/100
	녹색당	30/48	55/33	15/19	100/100
	민사당	-/37	-/36	-/27	-/100

< 서독인의 지원태세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동·서독인간의 연대의식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92. 4)

한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동독지역 사람들이 구서독 지역과 같은 생활수준에 도달하고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구동독지역 사람들은 구서독지역 사람들의 연대의식과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한다.’ (A)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나는 더이상 연대의식이나 지원이 필요없다고 본다. 현재 구동독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소독지역 사람들의 연대의식이나 지원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이 두사람중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구 분		내 용	A	B	잘모르겠다	계
		전 주 민	66/88	20/ 5	14/ 7	100/100
연령별	16 - 29	65/86	20/ 7	15/ 7	100/100	
	30 - 44	66/87	18/ 6	16/ 7	100/100	
	45 - 59	64/91	20/ 3	16/ 6	100/100	
	60 이상	68/87	20/ 5	12/ 8	100/100	
생활 수준	상 류 층	71/ -	17/ -	12/ -	100/ -	
	사무직, 노동자	65/ -	20/ -	15/ -	100/ -	
	수공업자	63/ -	21/ -	16/ -	100/ -	
	서 민 층	58/ -	25/ -	17/ -	100/ -	

정 치 성향별	기민/기사당	70/90	17/ 5	13/ 5	100/100
	자민당	69/88	24/ 4	7/ 8	100/100
	사민당	64/88	21/ 5	15/ 7	100/100
	녹색당	69/87	15/ 4	16/ 9	100/100
	민사당	-/80	-/ 8	-/12	-/100

0 질문: “아래 도표에 구동독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대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91. 7) 이 중 어떤것이 구동독지역에서 이미 착수하였거나 실현되었습니까? 귀하가 스스로 체험한 것 또는 들은 바 있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견해에 따르자면 어떤 대책이 긴급을 요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명)

내 용	이미 착수된것	가장 시급한것
전화통신망의 건설과 현대화	86/85	54/56
서독기업으로 하여금 동독지역에 업체를 설립하도록 장려	75/49	43/36
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각 도시와 지방단체에 지원	69/55	39/36
도로정비와 개선	68/46	78/62
시민을 위한 재정지원금 (주택수당, 실업수당 등)의 상승	63/59	30/68
노동관청의 재교육, 평생교육의 여건 제공	63/77	46/65
주택의 혁신과 현대화	61/46	51/49
직업상 자립하려는 사람을 위한 신용대부	58/77	29/30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기업에 지원	58/31	50/56
노후된 산업시설물로 인해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환경보호 조처 마련	56/71	54/58
법원과 경찰 지원	52/36	34/44
철도망의 개선	49/40	26/29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마련	49/75	52/75
기념물 보호, 노후된 건물과 시구역 복원	48/50	15/20
관광 진흥	44/36	11/ 8

(서독/동독, 단위: 명)

내 용	이미 착수 된것	가장 시급 한것
병원의 현대화, 의료보호 제도의 개선	42/37	60/68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42/48	26/31
실습생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35/22	46/57
쓰레기 처리장의 위생시설	33/37	56/48
농업지원, 진흥책	33/18	27/45
임대주택의 건설	33/17	39/41
도시의 수도물과 하수처리의 개선	26/28	41/37
학교 교육의 장려	25/21	24/32
기업의 건강보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22/13	24/26
사유화가 불가능한 기업의 국영 기업화	20/11	10/25
탁아소의 보존과 확장	20/20	28/44
유서깊은 극장과 공연장의 보존	17/15	7/ 8
양로원의 현대화	17/21	28/48
무응답	3/ 2	-

0 질문: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많습니다. 아래 도표에 (동독) 각종 변화상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통일후 개선된 것, 악화된 것, 불변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답변: ('91. 1/'92. 7, 단위: 명)

내 용	개선된것	악화된것	불변한것
상품공급	97/98	1/ 1	1/ 1
신문과 잡지의 선택 가능성	96/97	2/ 1	1/ 1
자유로운 여행	96/97	1/ 1	2/ 2
자립의 가능성	87/92	2/ 2	7/ 4
도로의 상태	12/73	17/ 5	69/21
의사표현의 자유	81/73	3/ 5	15/22
평생교육의 수혜 가능성	42/57	22/13	32/28
여가시간	52/57	14/17	30/25
TV 프로그램	46/45	18/20	35/34
연금생활의 안정성	32/38	33/29	32/30

('91. 1./'92. 7, 단위: 명)

내 용	개선된것	악화된것	불변한것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	37/37	32/29	27/30
의료보험	18/34	47/39	33/26
생필품 가격	40/34	42/50	17/15
미래에 대한 전망	28/33	57/51	14/15
학교교육	25/30	12/29	57/38
직업상의 기회	22/26	63/56	14/16
흥미있는 일자리의 공급	-/25	-/54	-/18
자녀교육	15/13	20/38	61/46
사람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인식 하는 통찰력	9/12	62/56	28/31
규칙적인 질서	5/ 7	66/65	25/26
도로교통의 안전성	3/ 5	86/87	11/ 7
전세가격	3/ 4	70/93	27/ 3
사람들간의 관계	4/ 3	67/83	27/13
민생치안	2/ 2	91/93	6/ 4

< 의사표현의 자유 >

0 질문: “귀하의 느낌으로는 이곳 구동독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동독) 를 자유스럽게 표현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연 도 별			정치적 성향별				
	'90. 5.	'90. 10.	'92. 2.	기민 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민사 당
자유롭게 표현한다	77	62	54	65	56	51	47	24
제한을 받는다	4	5	4	3	4	4	4	6
아주 조심스럽다	16	29	33	26	31	35	38	60
잘 모르겠다	3	4	9	6	9	10	11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대변혁 이전을 돌이켜볼때 통일이후 귀하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
(동독, '92. 3) 습니까? 다음 도표에 그 정도를 표현해 주십시오: 0은 귀하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10은 귀하의 생활에 심한 변화가
있음을 뜻하겠습니다.”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 29	30- 44	45- 59	60 이상
삶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다(6-10)	61	66	57	64	66	71	42
조금 변했다(4-5)	26	21	30	23	29	18	33
거의 변하지 않았다(2-3)	11	11	10	11	5	8	18
전혀 변화가 없었다(0-1)	2	2	3	2	-	3	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 균 은 도	6.4	6.6	6.1	6.5	6.6	6.8	5.4

0 질문: “귀하나 귀하의 가정에 동독의 멸망과 통일때문에 피해가 일어났
(동독, '92. 2) 습니까? 귀하는 대변혁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만일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어떤 피해나 어떤 불이익
이었는데 조금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 이상
피해, 불이익을 당했다	32	31	32	28	33	41	25
일자리 상실	19	16	21	18	22	28	6
금전적 손실, 통화가치하락	7	7	7	6	4	7	11
이상의 상실, 신념의 붕괴, 도덕적 폐단	2	2	2	2	2	3	-
직업적인 발전의 불확실	2	2	2	5	1	2	-
가정의 평화, 상호관계	1	2	1	1	2	4	-
명예 정년퇴직, 연금부퇴직	1	1	1	-	-	1	5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1	2	1	2	-	2	1
직업의 제한, 지위상실, 신분상실	1	1	1	-	1	1	3
주거지의 상실	1	2	1	1	-	2	2
토지의 상실	1	-	2	2	1	-	1
일반적으로 생활비용의 상승	1	1	1	-	2	1	1
일자리 변경	1	2	-	1	1	1	-
어떠한 피해, 불이익이 없었다	68	69	68	72	67	59	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과거청산 >

0 질문: “귀하는 현재 동독의 과거재조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92. 2) 아니면 너무 적게 집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너무 많이 집착	43/43	40/34	42/44	45/48	48/50	-/53
너무 적게 집착	26/31	25/39	25/20	26/29	22/27	-/23
잘 모르겠다	31/26	35/27	33/36	29/23	30/23	-/24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구동독 공산정권의 희생자 >

0 질문: “구동독 공산정권의 희생자들의 피해를 위해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90. 11) 보십니까?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충분히 보상	15/ 8	17/ 7	9/ 1	14/10	11/ 8	-/20
너무 적게 보상	37/51	34/56	45/58	41/46	41/49	-/27
잘 모르겠다	48/41	49/37	46/41	45/44	48/43	-/53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과거재조명 >

0 질문: “동독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해 여기 두사람이 토론하고 ('90.2) 있습니다. 이 사람중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누가 국가공안국(Stasi)의 희생자인지,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중 누가 Stasi에 협력했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과거는 밝혀져야 한다’ (A)

‘더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외부로 나타나는 사안때문에 죄없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만 집착하다가는 올바른 새출발에 불필요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B)

0 답변:

(단위: %)

내용	서 독					동 독					
	전주 민	기민/ 기사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전주 민	기민 당	자민 당	사민 당	녹색 당	민사 당
A	55	53	45	57	47	44	57	46	42	39	9
B	31	36	30	27	39	39	29	41	42	35	82
잘 모르 겠다	14	11	25	16	14	17	14	13	16	26	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귀하는 대변혁이전 Stasi에 관해 무언가 감지한 바 있습니까?
(동독, '92. 2)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중 그들로부터 처벌받은 사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계
구 분					
전 주 민		44	48	8	100
성 별	남	52	40	8	100
	여	37	54	9	100
연령별	16 - 29	40	51	9	100
	30 - 44	53	42	5	100
	45 - 59	47	44	9	100
	60 이상	35	54	11	100
교 육 수준별	국 졸	42	50	8	100
	중등교졸	38	51	11	100
	대 졸	58	35	7	100
신 앙 고 백	신교에	46	48	6	100
	구교에	70	21	9	100
	고백없음	42	49	9	100
정치적 성향별	기민당	47	44	9	100
	자민당	55	38	7	100
	사민당	42	51	7	100
	녹색당	41	48	11	100
	민사당	35	56	9	100

0 질문: “Stasi는 아직도 위험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Stasi의 위험은
사라졌습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여전히 위험	57/49	59/61	54/50	57/44	51/39	-/17
위험요소 사라짐	28/30	27/23	29/33	27/35	32/41	-/34
전혀 위험하지 않음	2/ 4	1/ -	4/ 1	3/ 4	3/ 2	-/31
잘 모르겠음	13/17	13/16	13/16	13/17	14/18	-/18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Stasi 희생자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Stasi 밀고행위의 희생자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92. 2)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나는 Stasi 희생자에 관한 보도가 너무 적다고 본다. 그들에 관한한 철저하게 목살되고 있다’ (A)

‘희생자들은 그들이 체험한 바를 충분히 거론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 관한 보도가 너무 적다고 보지 않는다’ (B)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A	38/28	41/38	33/29	38/27	24/25	-/ 5
B	41/48	38/40	41/42	42/55	50/41	-/78
잘 모르겠음	21/24	21/22	26/29	20/18	26/34	-/18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기회주의자 >

0 질문: “만일 구동독 공산당원이나 Stasi요원이 과거체제를 완전 청산하고 ('90.11) 이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한다면 이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서독	동 독					
	전주민	전주민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있다	8	8	5	6	8	9	31
없다	60	59	68	56	60	48	11
잘 모르겠다	32	33	27	38	32	43	5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밀고행위 >

0 질문: “귀하 자신도 Stasi로부터 감시를 당했습니까? 귀하는 Stasi로 (동독, '92.2) 부터 관찰대상으로 감시당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Stasi가 귀하를 무관심하게 여겼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감시 당했다	느끼고 있습니다	무관심 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주민		7	17	32	44	100
성 별	남	11	19	26	44	100
	여	4	15	37	44	100

연령별	16 - 29	4	15	33	48	100
	30 - 44	9	22	30	39	100
	45 - 59	10	18	26	46	100
	60 이상	6	13	38	43	100
교육 수준별	국졸	6	17	33	44	100
	중등교졸	4	14	35	47	100
	대졸	15	23	23	39	100
정치 성향별	기민당	9	21	27	43	100
	자민당	8	19	24	49	100
	사민당	5	18	33	44	100
	녹색당	9	11	37	43	100
	민사당	5	4	42	49	100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Stasi에 협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사람이 옳다고 보십니까?”

‘Stasi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뇌물로 사주할 수 있었기에 그토록 수많은 협력요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적지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신장을 위해 타인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희열조차 느끼고 있었다’ (A)

‘Stasi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다. Stasi는 인간을 공갈 위협하여 그들에게 협력하는 이외의 다른 길이 없도록 해버렸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서독	동 독					
	전주민	전주민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A	26	34	31	31	33	41	41
B	61	42	51	42	45	37	16
잘 모르겠다	13	24	18	27	22	22	4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동 기 >

0 질문: “현재 드러난 모든 Stasi 관련 사항중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92. 2) 대두됩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Stasi를 협력하도록 만들었는가?’ 아래 도표에 가능성있는 근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동기때문에 사람들이 Stasi에 협력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서독	동 독					
	전주민	전주민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개인적인 장점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73	73	78	80	72	62	51
직업상 우위에 서기 위해 위협과 강제에 못이겨	72	71	77	74	70	63	53
가정과 아이들을 곤경에서 보호하고자	63	49	47	71	49	49	49
돈을 벌 수 있기에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하고자	62	41	43	32	44	42	19
사회주의의 확신으로 부터 바람직한 동독시민으로서 당위성을 느꼈기에	47	63	72	66	64	51	27
인간적으로 약속을 했기에 적대자에게 복수하고자	47	41	48	48	37	41	19
남을 비방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는 데에 기쁨을 느끼기에	42	43	37	46	44	47	57
동독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32	21	17	18	24	18	34
적대자에게 복수하고자	28	31	34	28	32	31	7
남을 비방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는 데에 기쁨을 느끼기에	25	14	17	16	13	9	7
동독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24	21	26	29	19	17	7
동독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19	24	19	24	23	27	56

< 처 별 >

o 질문: “여기 두사람이 구 Stasi요원 처벌을 단념해야할지에 관해 토론하 ('90. 9) 고 있습니다. 귀하는 두사람의 의견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과거 Stasi요원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중책이었거나 낮은 직책이었거나 관계없이!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Stasi의 밀고행위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기만당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A)

‘만일 여하한 방법으로 Stasi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 모두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추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를 행하게 된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고위급 Stasi요원만 처벌해야 할 것이다’ (B)

o 답변: (단위: %)

내 용	서독	동 독					
	전주민	전주민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A	36	36	49	39	30	19	6
B	52	56	44	51	63	73	84
잘 모르겠다	11	8	7	10	7	8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Stasi 문서 >

o 질문: “여기 두사람이 Stasi 문서처리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90. 9)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모든 구동독시민들은 자신에 관한 왜곡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 관한 문서를 열람해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없이는 진정한 과거 재조명이 있을 수 없다’ (A)

‘Stasi 문서를 비공개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지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B)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A	61/60	59/65	54/66	62/61	70/61	-/35
B	23/27	23/22	26/19	24/29	15/27	-/53
잘 모르겠다	16/13	18/13	20/15	14/10	15/12	-/12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0 질문: “만일 귀하에 관한 사안이라면 Stasi 문서를 누가 열람하고 어떻 ('90.10) 게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민사당
문서에 관련된 사람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6/24	24/26	27/28	27/23	29/22	-/19
낮은 직책이나 해롭지 않은 단순 가담자의 서류는 폐기될 수 있으나, 중책을 맡은 책임자의 문서는 보관되어야 한다.	17/15	21/13	8/18	15/20	12/16	-/ 8
모든 문서는 공공사회에 개방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4/17	13/24	11/14	15/10	12/12	-/ 8
자신과 관련된 문서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3/20	13/19	12/ 7	14/18	18/24	-/24
모든 문서가 폐기되는 것이 최선이다.	11/13	8/ 9	16/12	13/13	11/15	-/26

(서독/동독, 단위: %)

비록 공공사회에 죄를 지고 있더라도 그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9/ 6	10/ 7	6/ 3	9/ 6	3/ 6	-/ 7
Stasi에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7/ 6	7/ 7	14/ 8	6/ 6	3/ 3	-/12
공공 관청과 국가조직에서만 문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4	6/ 3	2/ 7	6/ 6	3/ 2	-/ 2
문서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누구에게도 열람되어서는 안된다.	2/ 2	3/ 2	-/ 4	2/ 2	5/ 2	-/ 4
문서는 단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1/ 1	-/ 1	2/ 1	1/ 2	1/ -	-/ 6
무응답	7/ 2	6/ 2	13/ 1	5/ 2	7/ 2	-/ 1

- 0 질문: “귀하는 Stasi 문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92.3) 구동독시민들이 계속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계기관이 슈타시 문서 열람을 금지시키거나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권한이 있어야 한다	60/56	57/66	58/62	63/51	63/56	-/25
문서열람을 금지 시켜야 한다	7/13	6/11	3/10	9/14	4/14	-/24
문서를 파기 시켜야 한다	18/20	21/12	23/13	16/24	13/20	-/40
잘 모르겠다	15/11	16/11	16/15	12/11	20/10	-/11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구동독 공산당 간부 >

0 질문: “구동독 공산당 간부출신이 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함으로써 구동독 ('91. 7) 지역 재건에 어느정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직 종 별			
		전 체	정 치	경 제	행 정
매우 크다	22/30	25/12	25/ 6	31/20	18/25
크다	39/32	42/21	43/ 9	42/50	38/38
그리 크지 않다	24/17	23/33	21/38	19/10	35/37
경미하다	10/12	8/28	9/38	4/20	9/ -
전혀 지장이 없다	5/ 9	2/ 6	2/ 9	4/ -	-/ -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0 고위층에 관한 질문: “귀하는 구동독 공산당간부의 기업내 고위직 수행에 ('91. 7)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고급경영인은 구동독지역 재건에 불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합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직 종 별		
		경 제	정 치	행 정
불필요하다	52/22	56/ 6	46/50	44/45
절대 필요하다	31/43	28/53	41/30	31/22
잘 모르겠다	17/35	16/41	13/20	25/33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Stasi요원 고용 >

- 0 고위층에 관한 질문: “산업계의 Stasi요원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91. 7) 무조건 고용하지 말아야 할지, 형사사건 관련여부를 검토
한 후 채용할지, 아니면 그들의 서약에 따라야 할지?”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직 종 별		
		경 제	정 치	행 정
무조건 고용	9/ 4	9/ 4	7/ -	11/ 6
검토후 고용	78/84	76/79	82/95	80/94
서약에 따라 고용	8/10	10/14	4/ 5	5/ -
잘 모르겠다	5/ 2	5/ 3	7/ -	4/ -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과거의 연루상태 >

- 0 질문: “과거의 연루관계가 변함없이 구동독지역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91. 9)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귀하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동의한다	65/75	67/83	55/85	67/73	64/67	-/38
반대한다	11/13	11/ 7	13/ 8	10/14	7/16	-/45
잘 모르겠다	24/12	22/10	32/ 7	23/13	29/17	-/17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0 질문: “그리고 귀하는 과거와의 연루관계를 오직 민사당원(PDS), 즉 구동독 공산당원만으로 국한하십니까? 아니면 구동독의 공산당 제휴당원 역시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PDS만 연루	28/19	32/32	28/19	24/14	18/12	-/ -
제휴당원까지 연루	50/70	44/58	52/72	56/77	62/76	-/80
잘 모르겠다	22/11	24/10	20/ 9	20/ 9	20/12	-/20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기만행위 >

0 질문: “최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활은 기만당한 생활이었다. (동독, '91. 7) 우리가 사회주의와 함께 살았던 기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고 하였습니다. 귀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다	37	29	32	41	48
그렇지 않다	47	48	53	45	41
잘 모르겠다	16	23	15	14	11
계	100	100	100	100	100

0 보충질문: “나에게 통일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다	48	12	40	68	74
그렇지 않다	41	76	50	19	15
잘 모르겠다	11	12	10	13	11
계	100	100	100	100	100

0 50세이상에 대한 질문: “여기 구동독지역 출신 두 노인이 담론하고 있습니다. (동독, '91. 8) 귀하는 이 중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40년간 동독에 살면서 내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기만당했다고 느낀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A)

‘동독생활은 힘들었고 자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동독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무엇인가 달성할 수 있었다’ (B)

0 답변:

- 과거에 답했다면 ; A (41%)
B (43%)
잘 모르겠다 (16%)

- 현재에 답한다면 ; A (38%)
B (46%)
잘 모르겠다 (16%)

0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5개 신연방주’ 또는 ‘구동독’ 이라고 거론 (동독, '91.10) 하면 이말이 귀하에게 거슬리게 들립니까? 아니면 거슬리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거슬린다	16	16	17	19	11
거슬리지 않는다	62	59	58	67	65
상관없다	21	24	24	14	23
무응답	1	1	1	-	1
계	100	100	100	100	100

< 정체성 상실 >

0 질문: “동독이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걱정스런 소리가 자주 (동독, '90.7) 들립시다. 귀하는 이미 ‘동독의 정체성’ 이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0 답변: - 있다 (73%)
- 없다 (27%)

0 만일 들어본 경우, “귀하는 서독시민과 구분되는 동독시민의 독자적 정체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0 답변: - 있다 (80%)
- 없다 (12%)
- 잘 모르겠다 (8%)

0 만일 독자적 정체성이 있다고 볼 경우, “귀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사라져 간다고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0 답변: - 걱정한다 (43%)
- 걱정하지 않는다 (47%)
- 잘 모르겠다 (10%)

0 질문: “지금 구동독에 관해 실상을 파악하여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92. 2) 아니면 어느정도 상상하고 있었습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충격적이다	30/57	24/52	36/61	31/58	26/51	30/59	34/64
예상했다	61/30	69/35	55/26	57/27	66/38	66/29	57/28
기 타	1/ 4	11/ 4	1/ 5	-/ 4	2/ 4	-/ 4	1/ 5
잘 모르겠다	8/ 9	6/ 9	8/ 8	12/11	6/ 7	4/ 8	8/ 7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실상이 드러남 >

0 질문: “동독이 멸망된 이래 점점 더 많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동독
(’92. 2) 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관한 사안이 일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후 귀하가
들어본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명)

내 용	들어 봤다	일치 한다
적군파 (RAF) 테러리스트와 Stasi와의 협력관계는 구동독 지역에서 비밀에 부쳐질 수 있었다.	87/87	58/57
로타 데 마찌에르에 대한 비난과 그의 퇴진	86/92	24/26
살크와 고르바초프의 거래	86/96	46/60
M. 슈틀페에 대한 비난	83/90	27/39
G. 기즐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나온 신뢰할 만한 증거 들을 Stasi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협의가 입증됨.	75/86	16/23

드레스덴의 축구선수 T. 구에초프는 팀동료들에 관한 정보를 Stasi에게 건네줌.	52/68	14/20
작가이자 기자인 G. 발라프에 대한 비난	50/40	7/ 7
바우첸 수용소의 수감자들에 대한 보도	47/72	30/47
구동독-SPD의 의장인 I. 보에메는 Stasi의 협력자로서 신분이 밝혀짐	46/72	10/18
과거문제에 연루되어 J. Duchac 수상의 실각	43/61	5/10
블렌베르거 사건은 그녀의 남편인 V. 블렌베르거의 밀고에 의해서 일어났다.	43/67	29/38
Stasi의 미행, 염탐으로 발생한 민권운동가 B. 블레이의 사건	41/75	9/11
뉘슬레이 유럽 참피온인 H. Gzudal이 Stasi의 정보활동을 했다는 양심선언	41/52	7/10
작센주의 내무장관 예거르트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사건	37/54	24/32
동백림대학의 H. 핑크 강사에 대한 사건	25/53	4/13
W. 비어만에 의해서 공개된 S. 안더슨 사건	23/36	4/ 5
Stasi자료를 자신의 출판물에 이용한 베스트셀러 작가 B. 앵겔만 사건	20/17	3/ 2
최근의 선거 바로 직전에 Stasi 협력자로 밝혀진 W. 쉬누르 사건	17/47	3/15
동백림 학술원의 전체 회원이 서백림 학술원에 가입	16/23	5/ 4

< 식민지화 >

0 질문: “귀하는 동독의 서독가입과 관련하여 ‘식민지화’ 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11.		'91. 10.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있 다	29	36	37	49
없 다	71	64	63	51
계	100	100	100	100

0 만일 들어본 적이 있을 경우, “그렇다면 귀하는 동독의 서독가입을 일종의 식민지화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11.		'91. 10.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그렇다	33	46	27	53
아니다	53	40	61	30
잘 모르겠다	14	14	12	17
계	100	100	100	100

0 질문: “여기 어떤 토론행사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91. 10)

강연자가 독일 통일달성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독일인으로서 통일에 긍지를 갖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한사람이 일어나 질문하기를 ‘솔직하게 말할때 서독은 구동독을 식민지처럼 집어삼켰지 않소! 서독이 동독을 합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점을 자랑스럽게 여길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귀하는 이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옳다	18/47	6/22	13/40	26/52	47/62	-/92
그르다	66/32	83/55	79/37	57/29	35/22	-/ 8
잘 모르겠다	16/21	11/23	8/23	17/19	18/16	-/ -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나? >

- 0 질문: “사람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를 원해볼때가 없지 않습니까. 귀하의 경우 어떻습니까?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고 독자적인 동독이 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경우, “예컨데 국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통일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귀하는 이에 찬성합니까?”

- 0 답변: (단위: %)

내 용	서 독	동 독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5	36
찬성한다	12	7
반대한다	16	19
잘 모르겠다	7	1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5	50
잘 모르겠다	10	14
계	100	100

< 완만한 통일속도 >

- 0 질문: “최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구동독지역의 문제점을 볼때 나는 동·서독이 분단상태로 있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본다. 그랬더라면 동독은 서서히 시장경제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동의한다	35/31	32/28	37/33	44/24	34/36	35/30	25/34
반대한다	45/54	52/60	39/49	34/66	51/54	46/51	51/45
잘 모르겠다	20/15	16/12	24/18	22/10	15/10	19/19	24/21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골수의 장벽 >

0 질문: “장벽이 무너진 후에 이제는 동·서독인들의 머리속에 장벽이 설치되어 서로 분단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귀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91. 11.	'92. 4.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동의한다	50/57	57/66	56/61	64/70	58/68	50/67
반대한다	29/23	26/18	21/21	23/13	26/16	33/21
잘 모르겠다	21/20	17/16	23/18	13/17	16/16	17/12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0 구서독지역에서 최근 12개월동안 구동독지역 출신사람들과 접촉을 갖었던 사람(61%) 및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 출신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82%)을 대상으로 한 질문: ('92. 4)

“장벽이 무너진 다음 동·서독인들에게는 머리속에 장벽이 생겨 서로 분단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귀하는 어떠했습니까? 귀하가 구동독지역(또는 구서독지역) 출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체험한 것은? 그들과 잘 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잘 통했다	68/72	64/76	74/68	73/70	62/67	63/75	79/76
잘 통하지 않았다	15/15	18/13	11/17	15/16	18/18	15/14	10/11
잘 모르겠다	17/13	18/11	15/15	12/14	20/15	22/11	11/13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확 신 감 >

0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독일통일에 따르는 문제점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점 때문에 걱정스럽다’ 라고 말했다 경우, 귀하 역시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그렇게 느낀다	26/24	27/22	31/25	27/29	22/20
확신한다	59/64	57/64	56/67	59/58	63/65
잘 모르겠다	15/12	16/14	13/ 8	14/13	15/15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 0 질문: “귀하는 현재 이곳 구동독지역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동독) 구동독지역의 분위기는 낙관적이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관적이고 절망적입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90. 10.	'91. 3.	'91. 9.	'92. 7.
낙관적이다	47	7	19	17
비관적이다	32	85	65	69
잘 모르겠다	21	8	16	14
계	100	100	100	100

< 초 조 감 >

- 0 질문: “여기 두사람이 이곳 구동독지역의 상황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습
(동독) 니다. 귀하는 어느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실업자문제와 기업도산이 계속되면서 이곳에서 무엇인가 조속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되면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곳 상황에 주위가 경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A)

‘시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는 긴급한 국가건설에 제동이 걸릴뿐이다. 우리는 더 참아야 된다. 모든게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절망상태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B)

0 답변: (단위: %)

내 용	'90. 10.	'91. 4.
A	30	48
B	55	38
잘 모르겠다	15	14
계	100	100

< 비 관 >

0 질문: “구동독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직 ('91.10)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착수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구 분		올바로 진행	다른 방법으로 착수	잘모르겠다	계
전 주 민		46/33	25/35	29/32	100/100
성 별	남	45/33	27/35	28/32	100/100
	여	46/32	24/36	30/32	100/100
연령별	16-29	35/30	31/31	34/39	100/100
	30-44	41/34	30/39	29/27	100/100
	45-59	51/30	22/41	27/29	100/100
	60이상	56/35	19/30	25/35	100/100
정 치 성향별	기민/ 기사당	66/53	10/21	24/26	100/100
	자민당	60/40	13/34	27/26	100/100
	사민당	34/34	38/34	28/32	100/100
	녹색당	23/18	42/51	35/31	100/100
	민사당	-/ 6	-/76	-/18	-/100

< 체제비교 >

0 질문: “구동독의 정치현실과 구동구권의 정치현실을 비교할 때 구동구권이 구동독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동독이 구동구권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보십니까? 또는 전혀 차이점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정치관계	경제관계
동구권 열악	23/44	62/84
동독 열악	22/11	7/ 3
차이가 없다	40/34	24/ 7
잘 모르겠다	15/11	7/ 6
계	100/100	100/100

< 동구권에 대한 우월감 >

0 질문: “구동독지역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동독, '91. 5) 구동독지역의 상황이 구동구권 국가로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동독 우월	88	91	82	90	89
대략 비슷	8	7	13	7	5
동독 열악	1	-	1	-	1
잘 모르겠다	3	2	4	3	5
계	100	100	100	100	100

0 질문: “구동독지역의 경제현황, 경제구조변경 등을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곳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변경이 다른 동구권 국가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다 서서히 진행 또는 모두 똑같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전주민	연 령 별			
		16-29	30-44	45-59	60이상
동독 신속 진행	78	85	82	78	64
모두 신속 진행	5	3	5	4	7
동독 완만 진행	1	1	2	-	1
잘 모르겠다	16	11	11	18	28
계	100	100	100	100	100

< 재건의 원동력 >

0 질문: “매우 일반론적 질문입니다.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가장 기여 ('91.10) 도가 큰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0 답변:

(단위: 명)

내 용	서독	동독
< 서독, 구연방주 >	53	33
정치가	21	16
산업, 기업	21	15
시민 주민	9	1
납세자	5	-
정당	2	3
모두 중요한 역할	1	1

< 동독, 신연방주 >	37	59
시민, 주민	24	29
정치가, 주정부	6	21
신탁통치	6	1
기업체, 수공업자, 중산계층	5	11
시민발안	1	2
노동조합	-	1
< 기 타 >	2	1
어느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4	5
무응답	17	13

< 정부의 실적 >

0 질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준비과정을 돌이켜볼때 이것이 곧 현정부의 위대한 실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부가 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90. 9	'91. 10	정치적 성향별				
			기민/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위대한 업적	43/69	41/58	58/83	44/56	26/53	15/33	-/27
별것 아니다	42/18	4/23	21/10	36/23	62/24	54/38	-/58
잘 모르겠다	15/13	18/19	21/ 7	20/21	12/23	31/29	-/15
계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

< 공 지 >

0 질문: “최근 독일이 달성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할지에 관하여 ('91.10.)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구동독지역의 산적한 문제점에 비추어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위대한 실적을 논하기에는 수많은 것이 잘못되었고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A)

‘우리는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질만 하다. 완전성공한 화폐통합과 현재 구동독 지역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지원조치를 어느 누군가가 한번 꼭 답습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발전이 눈에 보이고 있다.’ (B)

이 두사람중 어느 사람이 귀하의 견해에 가장 가깝습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A	B	잘모르겠다	계
구 분					
전 주 민		36/45	47/38	17/17	100/100
성 별	남	38/42	46/40	16/18	100/100
	여	34/47	48/36	18/17	100/100
연령별	16-29	43/50	37/32	20/18	100/100
	30-44	41/46	43/37	16/17	100/100
	45-59	33/40	49/42	18/18	100/100
	60이상	28/43	58/42	14/15	100/100
정 치 성향별	기민/ 기사당	16/20	70/62	14/18	100/100
	자민당	35/37	42/41	23/22	100/100
	사민당	53/51	29/31	18/18	100/100
	녹색당	61/68	17/20	22/12	100/100
	민사당	-/85	-/ 5	-/10	-/100

0 질문: “현재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책을 한번 ('91.10) 짚어볼때 현정부의 위대한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0 답변: (서독/동독, 단위: %)

내 용		위대한 업적이다	별것 아니다	잘모르겠다	계
구 분					
전 주 민		47/47	36/25	17/28	100/100
성 별	남	42/47	38/26	20/27	100/100
	여	50/47	35/24	15/29	100/100
연령별	16-29	31/45	41/27	28/28	100/100
	30-44	40/53	44/24	16/23	100/100
	45-59	51/45	34/25	15/30	100/100
	60이상	63/43	27/23	10/34	100/100
정 치 성향별	기민/ 기사당	67/70	19/14	14/16	100/100
	자민당	52/48	36/17	12/35	100/100
	사민당	27/38	54/32	19/30	100/100
	녹색당	24/35	42/29	27/36	100/100
	민사당	-/19	-/45	-/46	-/100

< 구동독인의 정체성 >

0 질문: “귀하는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동독인이라 (동독) 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답변:

(단위: %)

내 용	연 도 별		성 별		연 령 별			
	'90. 3.	'92. 1.	남	여	16-29	30-44	45-59	60이상
독일인이다	61	35	41	30	42	30	26	43
구동독인이다	32	60	56	63	53	66	70	50
잘 모르겠다	7	5	3	7	5	4	4	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 자료를 상업목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할 경우에는 Allensbach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 사례

인 쇄 : 1994. 5. 27

발 행 : 1994. 5. 30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TEL : 723-4867

725-0763

<비매품>

